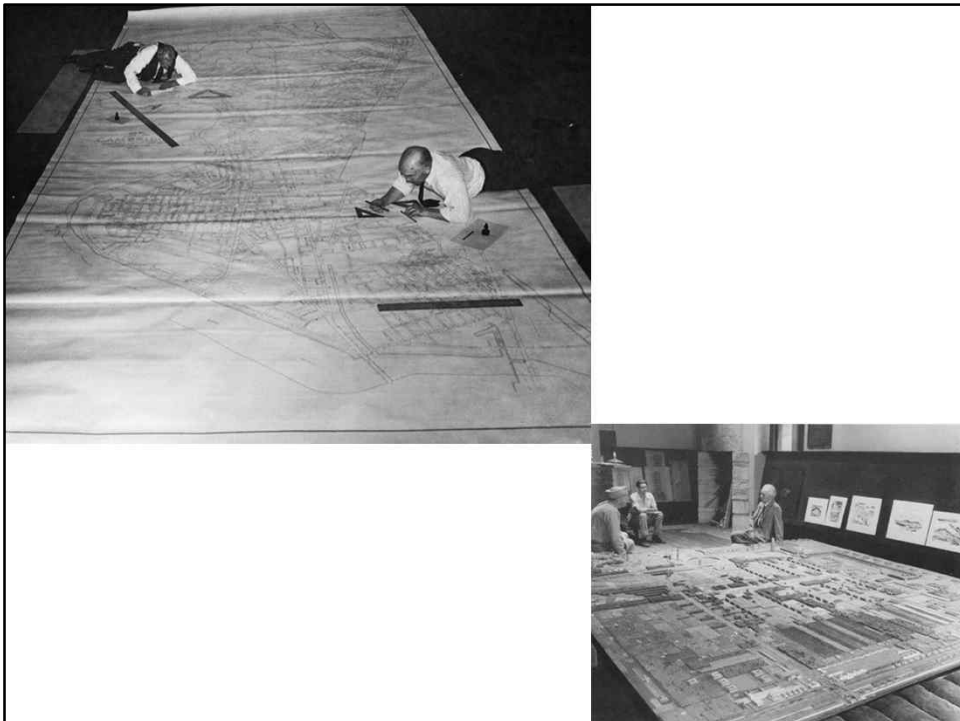


**#8 Designing New Cities,  
District and Neighborhoods**  
Urba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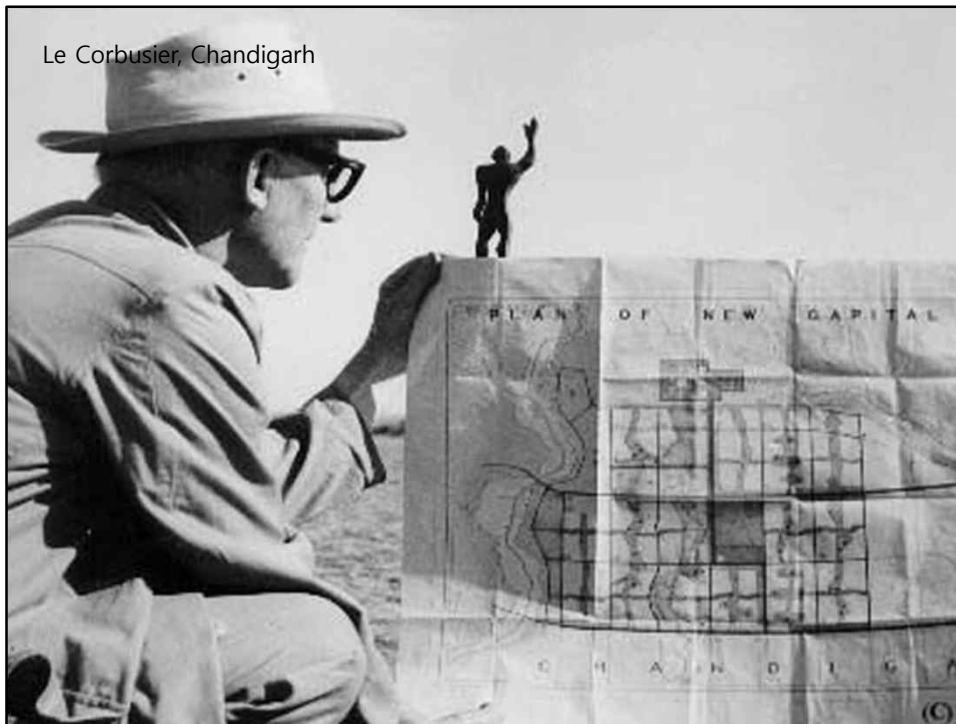
**Kwon, Young 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Design Major

**#1. New Cities in History**



Le Corbusier, Chandigarh



Based on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f Hanoi, its four major assets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city, a central commercial city, a cultural and tourism city, and a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y.

Took the foc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city project.

The international business city is a new city for international traffic, targeting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services for the Southeast Asian region in the 21st century, and to form a beachhead for a launch toward the western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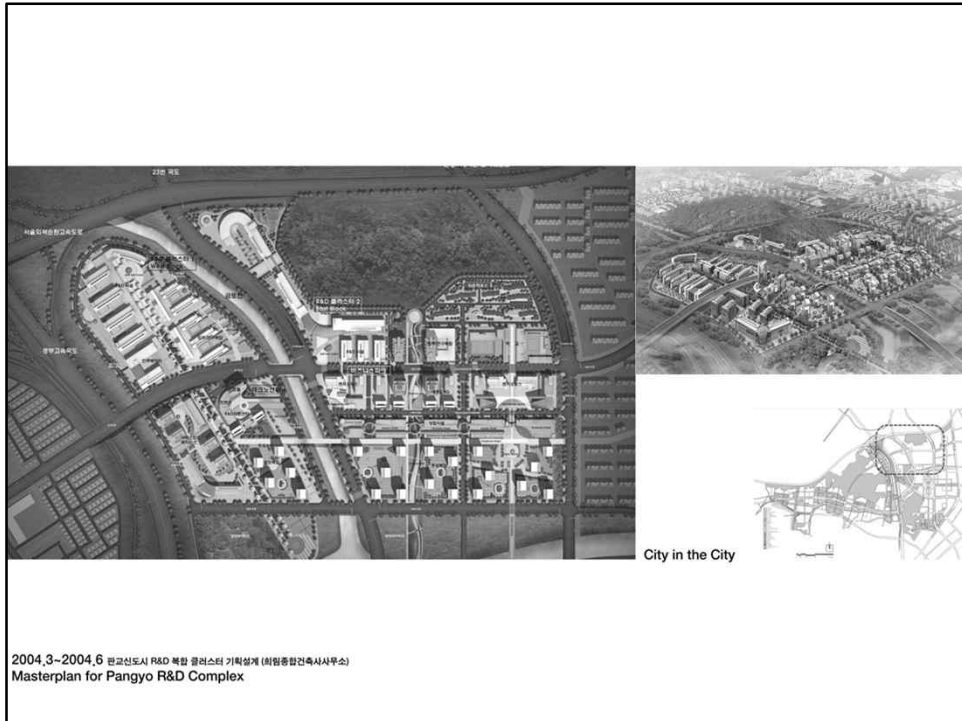
The central commercial city area was designed to form a central commercial district through the joining of commercial facilities with cultural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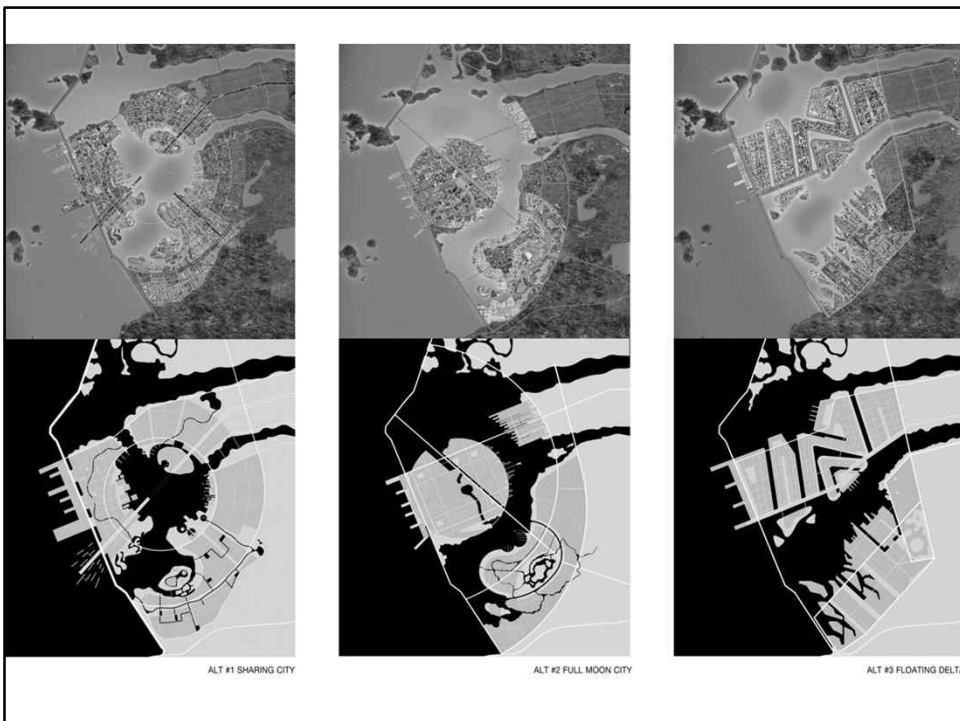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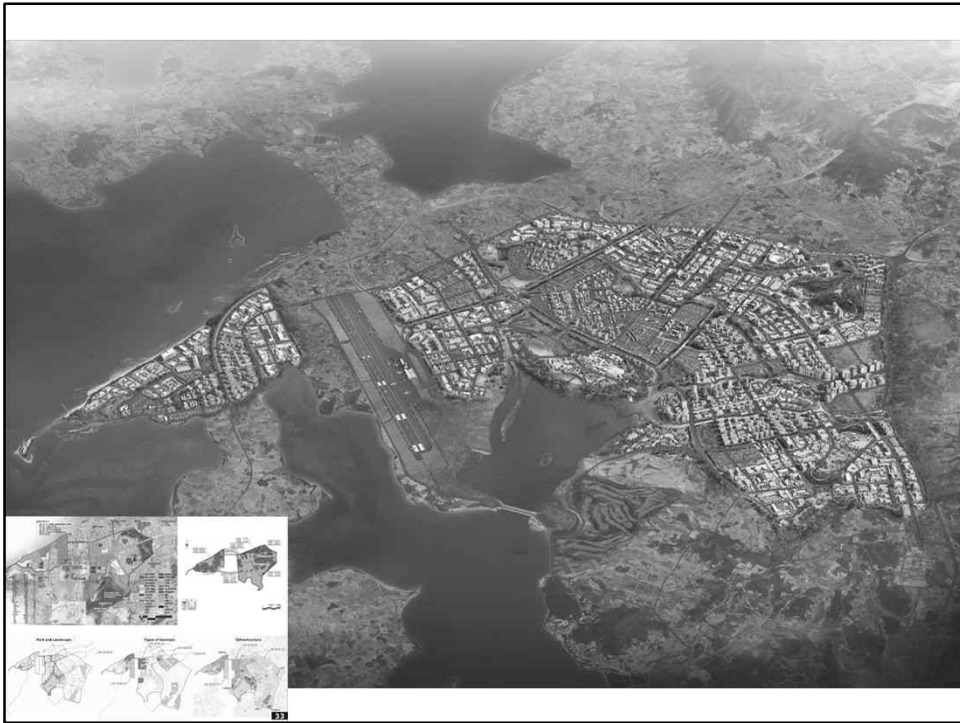
**Concept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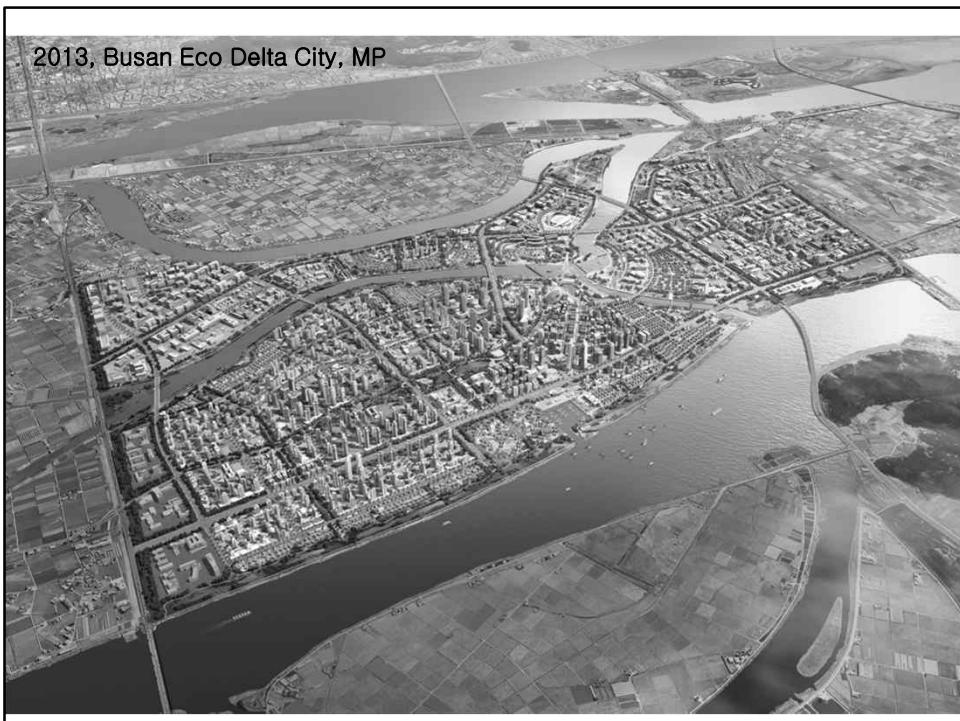
The cultural and tourism elements were designed to nurture the city as an international city of tourism and entertainment, with the added function of Hanoi as a city of relax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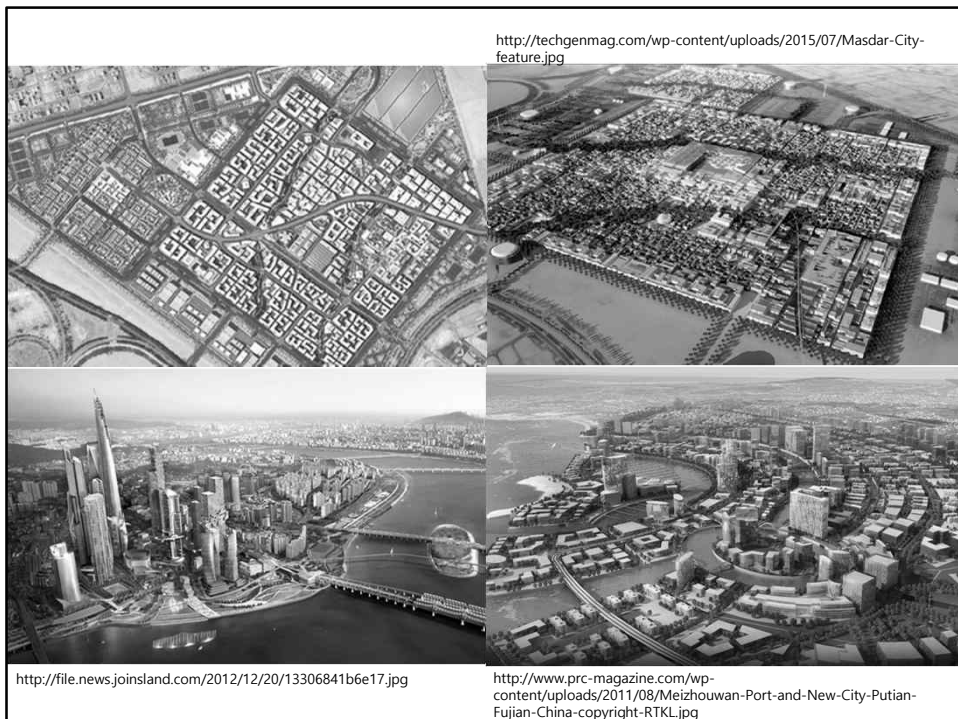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y project was crafted so as to construct an area by organically joining with natural environmental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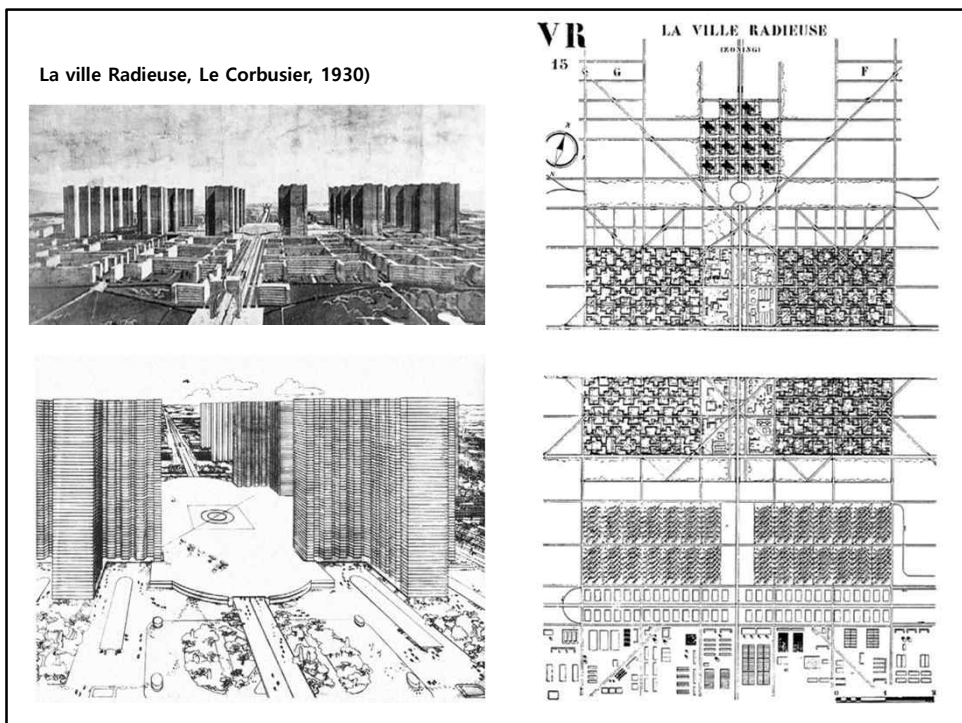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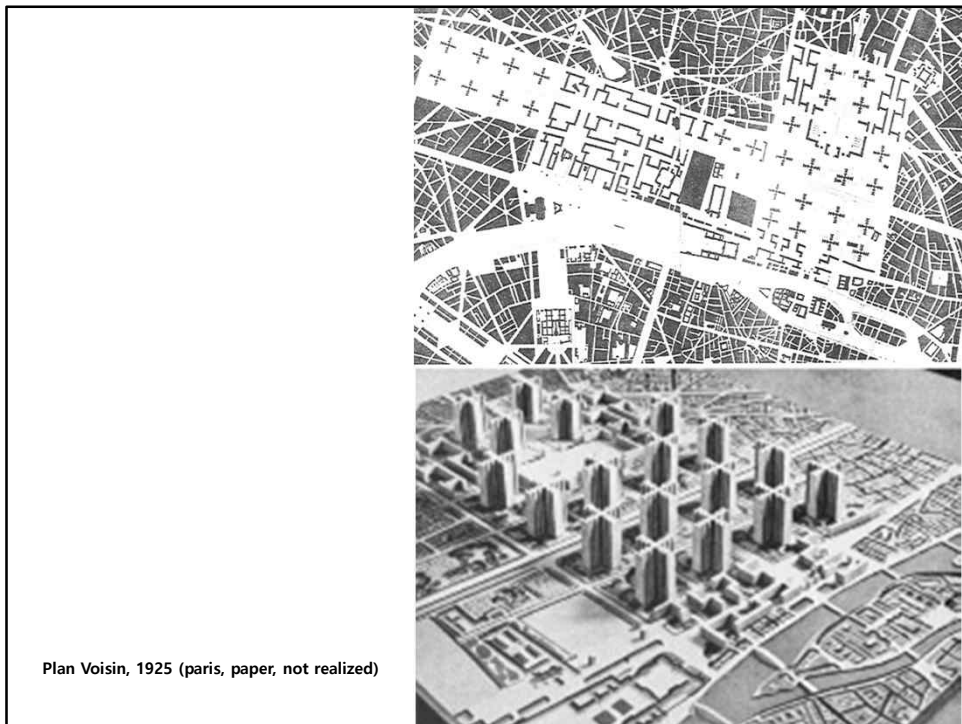
2004.1~2004.2 중국 성도신도시 마스터플랜 (비밀종업건축사사무소)  
SungDo City Master Pla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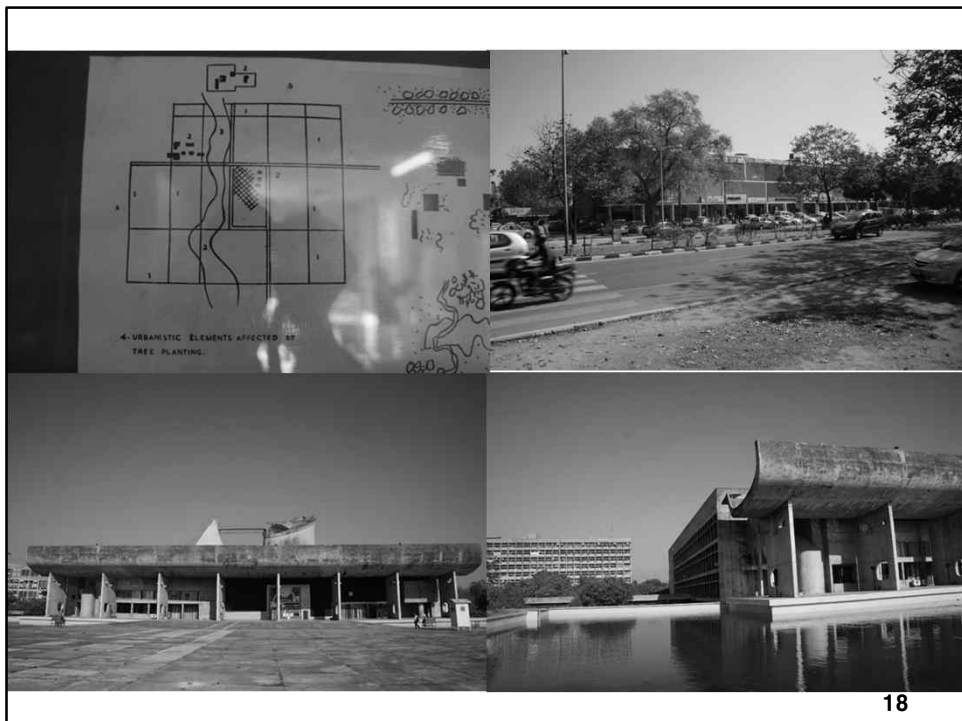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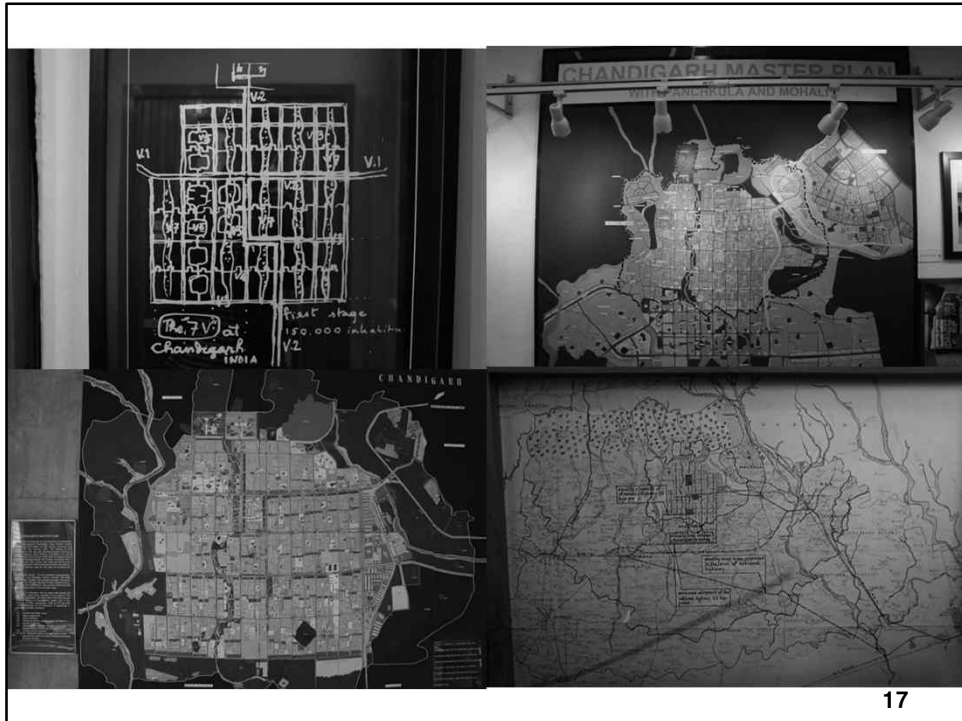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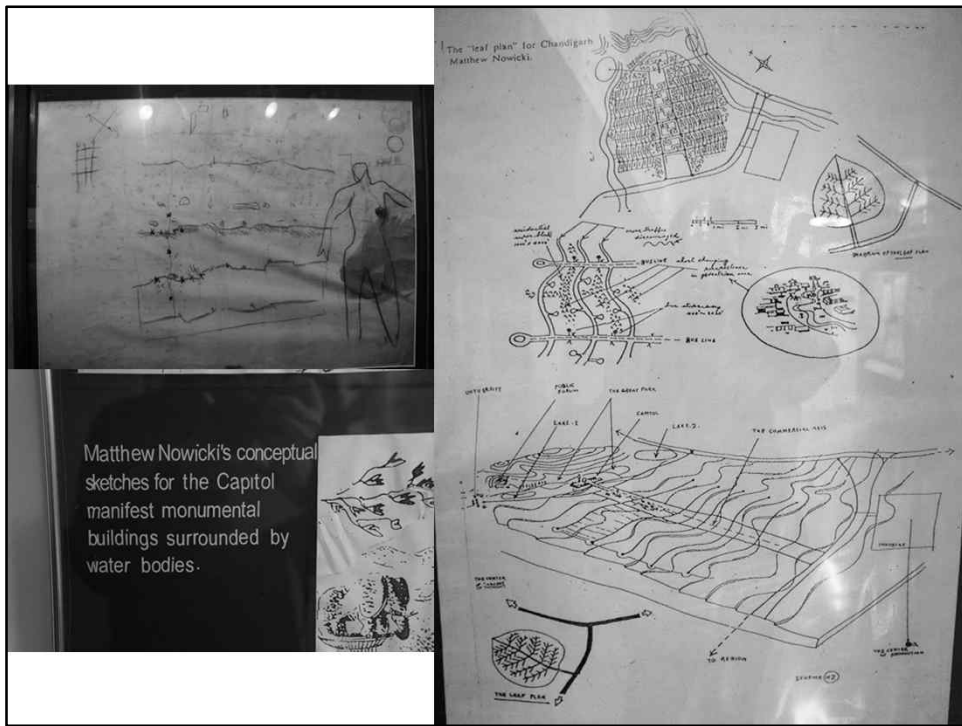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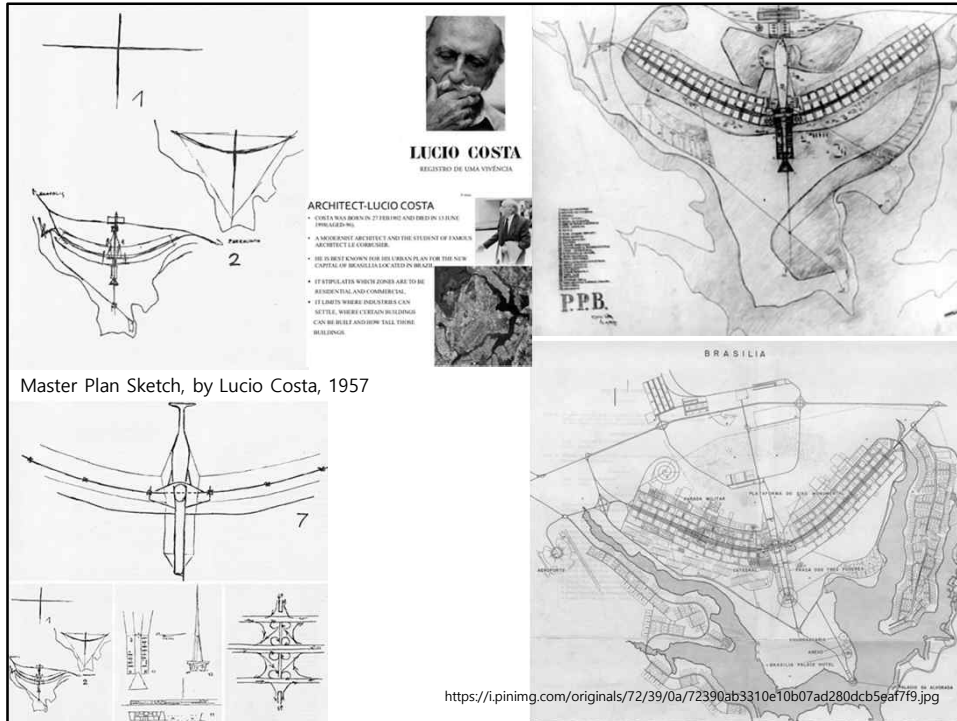












이상준, 이영, 찬디가르시 행정지구 배치 분석 연구, 도시설계, 2006

찬디가르市 행정지구 배치분석 연구

An Analysis of the Site-Layout for the Capitol of Chandigarh

이상준\* · 이 영\*\*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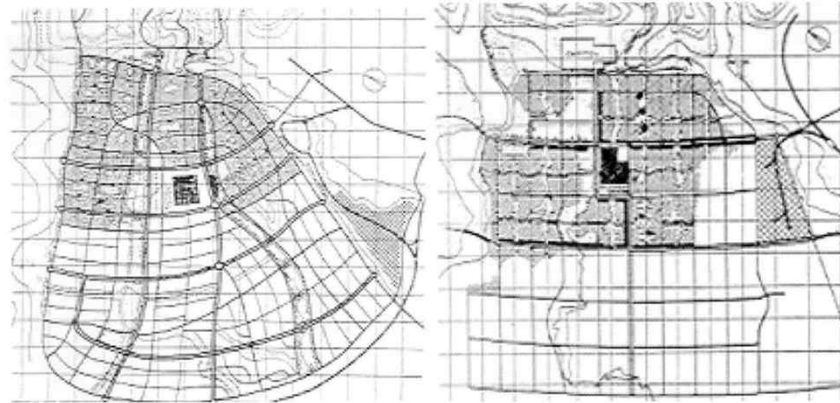
Lee, Sang Jun\* · Lee, Young\*\*

\*\*\* 국문요약

연구는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의 후기 작품인 인도 찬디가르(Chandigarh) 신수도 계획 중 행정지구 배치계획 분석에 관한 것이다. 찬디가르 신수도 계획은 1920년대 이후 발표된 르 코르뷔제의 도시계획안 중 유일하게 실현된 사례로서, 르 코르뷔제는 전체 도시 계획의 수석 자문과 행정지구를 직접 설계하였다. 연구는 행정지구 배치계획의 변화과정과 건축물의 구성특성을 르 코르뷔제의 도시계획과 건축 이론의 적용과 변형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행정지구의 배치계획은 우선 히말리아산맥을 배경으로 하는 정관적 배려에서 시작된다. 특정 건축물을 주도로부터의 시계 방향으로 하는 관습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각축을 시의 대표성을 지닌 주지사관저와 열린 손 사이에 놓아 열린 시계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경관수용 태도가 확인된다. ②주지사관저와 열린 손 중심으로 하여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을 대응 배치하고, 행정업무기관을 시의 중심을 향하게 배치하여 정치적 상징성을 배치상에 구현하였다. ③서로 개별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건축물들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a. 전체 배치에서 주지사관저를 기 본단위로 하는 기하학적 바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b. 기하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각 건축물의 입면이 브레이즈슬레이어를 사용하였으며, c. 소홀을 연상시키는 우선 모티프를 전 건축물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켜 통일감을 부여하고 다섯원칙 중 옥상정원의 개념을 지역적 특색으로 조장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였다. ④가 건축물들의 관계는 유동적 흐름을 지니게 된다. 즉 고정된 시점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투시도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대상이 파악되는 역동적인 시선을 구현하고 있다.

\*\*\*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Le Corbusier's(LC) architectural intentions on the site-layout for the Capitol of Chandigarh, India. Chandigarh project is the only constructed project of LC's urban planning since 1920s. In this project, LC was the Master architect and designed the Capitol. The paper analyzes alteration process of site-layout and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buildings in terms of proper application of LC's Urban and Architectural principle.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ere abstracted as follows: (1) The site-layout for the Capitol was stemmed from a deep consideration for its panoramic landscape; (2) Juxtaposing the Governor's Palace and the Open Hand in the middle site background, LC put the Parliament and the High Court facing each other at each side while he positioned the Secretariate building towards the rest of the City in order to symbolize each building's identities; (3) Trying to endow a feeling of Unity with each separate buildings of different functions, LC positioned the Governor's Palace in the top-middle of the site and modulated this as a fundamental module unit volume for all other buildings, adopted Brises-soleil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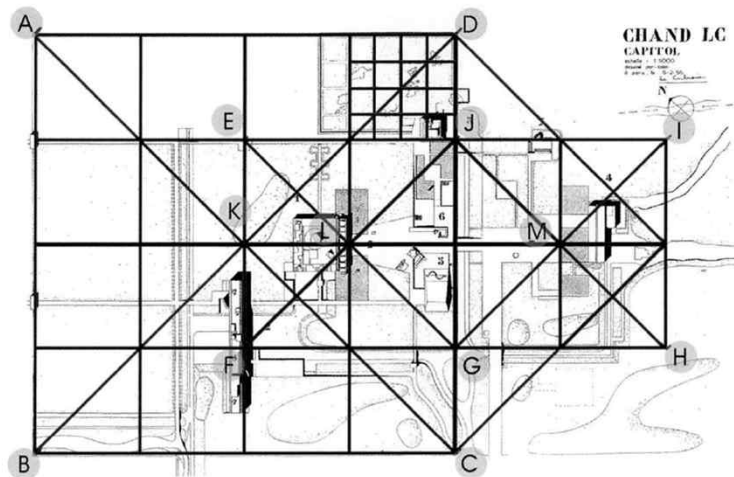


(a) 알버트 메이어의 계획안

(b) 르 꼬르뷔제의 계획안

〈그림 4〉 찬디가르 도시계획의 변화

The Le Corbusier Archive(1982) 르 꼬르뷔제는 도심 중심부의 업무지구, 남동쪽의 공업지구, 최상부의 행정지구 등을 배치한 메이어의 계획안의 골격을 유지하였으나, 대지의 윤곽과 다른 격자 체계의 조닝과 교통체계를 정비한다. 전체 교통체계는 7가지 종류의 교통망(7V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체 도시는 모듈러에 의해 격자형으로 계획되도록(각 섹터의 표준치수는 1,200m×800m 내외로 구획됨) 계획이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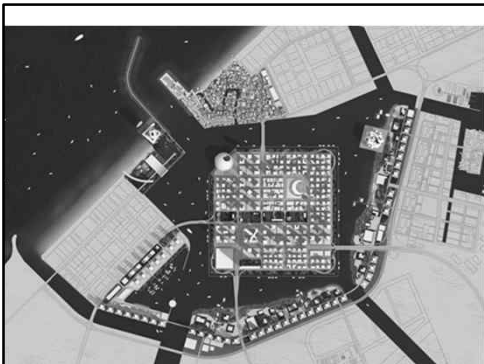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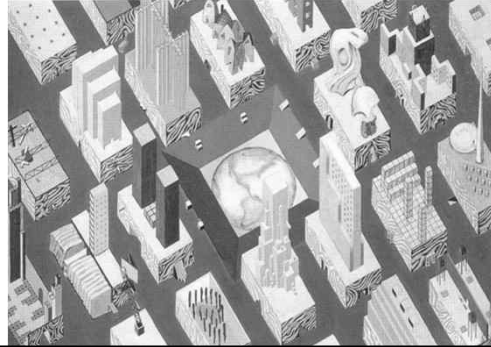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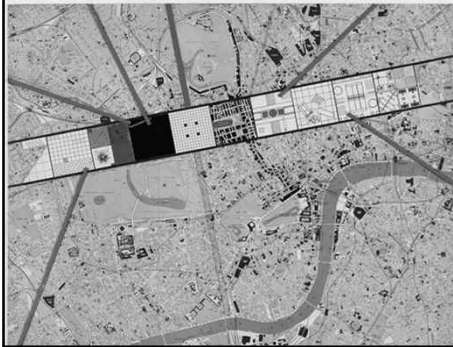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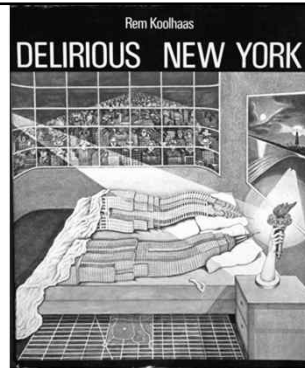
〈그림 9〉 행정지구의 기하학적 질서

Le Corbusier 전작품집(1997) 도판을 바탕으로 분석, 전체 도시와 연관된 그리드 패턴은 기념비적 기둥에 의해 암시된다. 기념비적 성격의 기둥의 크기에 따라 A-B-C-D / E-F-G-(H)-J의 윤곽을 따라 1개의 큰 사각형과 2개의 작은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 행정지구의 중심축은 D-C의 남북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회의사당과 고등법원을 연결하는 K-L-M의 동서축이 교차된다. 또한 전체 격자 모듈은 주지사 관저의 바닥면적의 16배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격자 모듈은 건축물의 내부 기능과 모듈 구성을 고려한 출입동선의 조절(국회의사당-고등법원)을 통해 교묘히 조작되며, 주지사 관저와 후정의 경우 추가적인 격자모듈과 미세한 위치 이동으로 조작되어진다(주요 건축물 배치 해석에서 다룸).

## OMA/Rem Koolhaas

Le Corbusier - Proposal of Urban Structure

Rem Koolhaas - a city made of a building, fixes an incorrect relationship in a created city structure



Generic City in Du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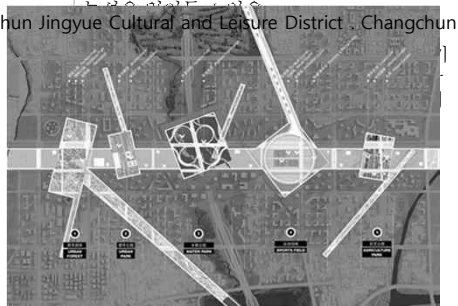


New Civic Center in Columbia

- 공원의 성장 전 과정에 걸쳐서 장차 다양한 문화 기능이 새롭게 추가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Changchun Jingyue Cultural and Leisure District, Changchun





대한건축학회, 2013

렘 쿨하스의 Bigness 개념의 한계와 의의

The Critical Point and Significance in the Notion of Rem Koolhaas's Bigness

정혜진<sup>1)</sup> 김광현<sup>2)</sup>  
Chang, Hye-Jin Kim, Kwang-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ritical point and significance of Rem Koolhaas's notion of Bigness as contemporary architectural discourse in the age of Global City. Koolhaas captures precisely the congestion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Bigness is a concept that will deal with how to intervene in these situations, the influence of a variety of architectural and urban phenomenon. Diverse situation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these changes in behavior and the physical space and the relationship of architecture and urban. Bigness penetrated the answer, he puts out. However, in order to provide the attracted and removed to accommodate the complex and chaotic, it becomes a city. Bigness clear the actual city. Therefore Bigness itself clearly reveals the situation of chaos and division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limits of the location on the border.

키워드 : 렘 쿨하스, Bigness, 경계, 규모, 복잡, 정형성, 불규칙성  
Keywords : Rem Koolhaas, Bigness, Threshold, Scale, Flow, Complexity, Publicity

1. 서론

오늘날 글로벌화되는 후기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를 반영하는 실적으로 여겨진다. 도시라는 것이 단순의 물리적 환경이나 건조물이 아닌 사회를 드러내는 현상 혹은 담론의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도시라는 용어는 이미 학제적 경계를 넘어선 말의 넘나들기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티이다 존재하는 초대형건축물은 건축과 도시의 행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계획과 전체적 성격상의 구분을 무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이고 개별적인 실체로서 건축의 위상을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현실의 기층 위에 재정립하는 것이 건축담론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OMA를 이끌고 있는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말쑥한 세계적 현상으로서 대도시(Metropolitan)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용과 차용을 통해 밀집, 혼돈, 복잡성, 맥스, 확산 등을 그 특징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그의 저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S.M.A.L.L.I(1995)에 수록된 'Bigness: or the problem of Jaxa'<sup>3)</sup>라는 글에서 주장한 'Bigness'라는 용어는 원래도 실용적 목적을 가진 건축론에서 비롯되는 건축(혹은 건축가)의 문제와 역할-특히 경제경제적-결정적용 및 사회적-문화-출생-죽음-도시와 건축의 새로운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을 시사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위험할만한 것도 고안되어야만 역사에 남는다'에 의해 '왜' '사소한 것' '불규칙'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렘 쿨하스는 60년대 이후 건축가들이 모더니즘을 막아내 자서 선행하고 있었던 정치-문화적 변동을 포착하는 눈을 잃어 버렸으며 스스로의 정념을 차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Bigness는 그가 60년대 이후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건축-도시의 복잡성과 혼돈을 다룸에 있어 건축가가 스스로 지켜낸 그 어휘와 정념의 영역으로 다시 포섭시키려는 시도로서 사소한 용어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제는 건축이론가들에게도 단적으로 나타났다. 원래 건축의 도시주의가 지배하는 위기는 현 상황을 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담론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Bigness라는 개념이 글로벌시티의 건축 혹은 도시주의라는 이론을 담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서

3) Bigness는 1991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저명한 OMA건축사를 통해 처음 소개된 단어이다. 1995년 저서인 S.M.A.L.L.I.에 같은 표현이 렘 쿨하스의 저술을 검토해보면 문맥과 주제가 매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006년 저서인 'The Delirious City'에서 S.Sauser은 초근적 차용 정형성의 본질적 한계에 의해 지는 차용-감용 문제의 지어 변형과 표현, 또한 렘 쿨하스 등 서구권 건축의 실용적이라는 도시주의, 인간, 문화 등을 예로 들고 있다.

1) 'Global city'는 사회학자 Saskia Sauser이 그의 저서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2001)'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경제-문화는 도시적 문화정책에서 도시의 특질-기능의 부상을 설명한다. S.Sauser은 초근적 차용 정형성의 본질적 한계에 의해 지는 차용-감용 문제의 지어 변형과 표현, 또한 렘 쿨하스 등 서구권 건축의 실용적이라는 도시주의, 인간, 문화 등을 예로 들고 있다.

2.2 Bigness의 경계적 성격

1) 규모의 문제 : 콜하스의 건축-도시관

콜하스는 'Bigness=urbanism vs. architecture'<sup>8)</sup>라고 선언함으로써 집합체로서의 도시를 구성하는 개체로서의 건물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기대한 건축물이 도시에 가하는 구조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으며 건축을 도시의 구성인자가 아닌 도시와 대등한 집합체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축이 높아지며 기대해지는 경향은 근대기술과 도시밀도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되었고, 이미 르 코르뷔제의 '빛나는 도시' 계획안이나 맨하탄 마천루에 대한 비판에서 그 필연성이 제기되었다. 콜하스 역시 맨하탄 마천루에 대한 연구<sup>9)</sup>를 통해 근대 기술과 경제적인리가 낳은 건축의 형태와 결과에 대해 비평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Bigness는 맨하탄 연구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콜하스의 도시주의적 관점을 정리한 선언이며 동시에 맨하탄 마천루와는 구별되는 Bigness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일정 크기를 넘어서는 단일 건물은 Bigness를 획득하게 되며... 그것은 최후의 건축이다'<sup>10)</sup>라고 할 때 Bigness는 단지 크기의 기대함을 지칭하기보다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실행된 전례없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의 규모는 단일건축과 집합체로서의 건물군,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있는 도시라는 것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

7)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op. cit., p.p. 502-503  
 8) O.M.A. Rem Koolhaas and Bruce Mau, op. cit., p.515  
 9) 1978년 출간된 *Delirious New York: a retroactive manifesto for manhattan*

그가 1989년에 수행한 3개의 Big Project들(제브루지 항만터미널, 파리국립도서관, ZKM 미디어센터)은 Bigness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이들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콜하스는 공공적 '기념비성'과 '프로그램의 복합성'을 '구조기술적으로' 다루는 문제로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제브루지 터미널에서 중요했던 문제는 그것의 가시적 기념비성을 드러내는 거대한 형상과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 그리고 그 단일메스 안에 중첩되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였다. 그는 형태적 상징성의 측면-규모의 충격-과 내부의 복합성을 통해 건축의 한계적 위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여기에서도 빈 공간(Void)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빈 공간은 호렘과 회의장을 각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블록으로 나누어 차이를 조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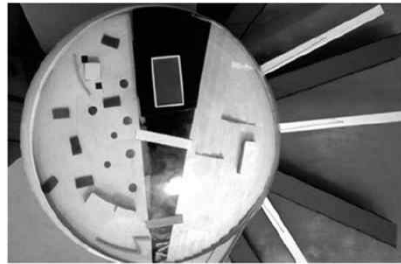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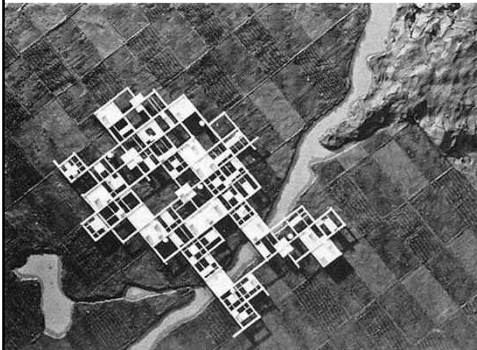


그림 3. ZEEBRUGGE SEA TERMINAL(1989), <http://oma.eu>

# Metabolism, Japan

Agricultural City, 1960, Kurokawa Kis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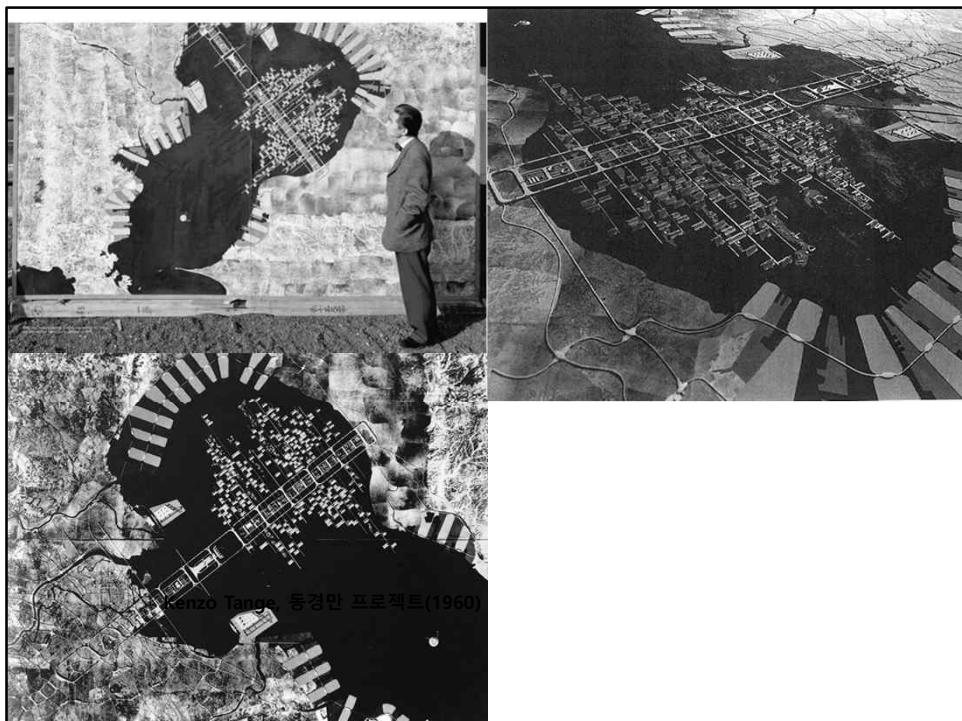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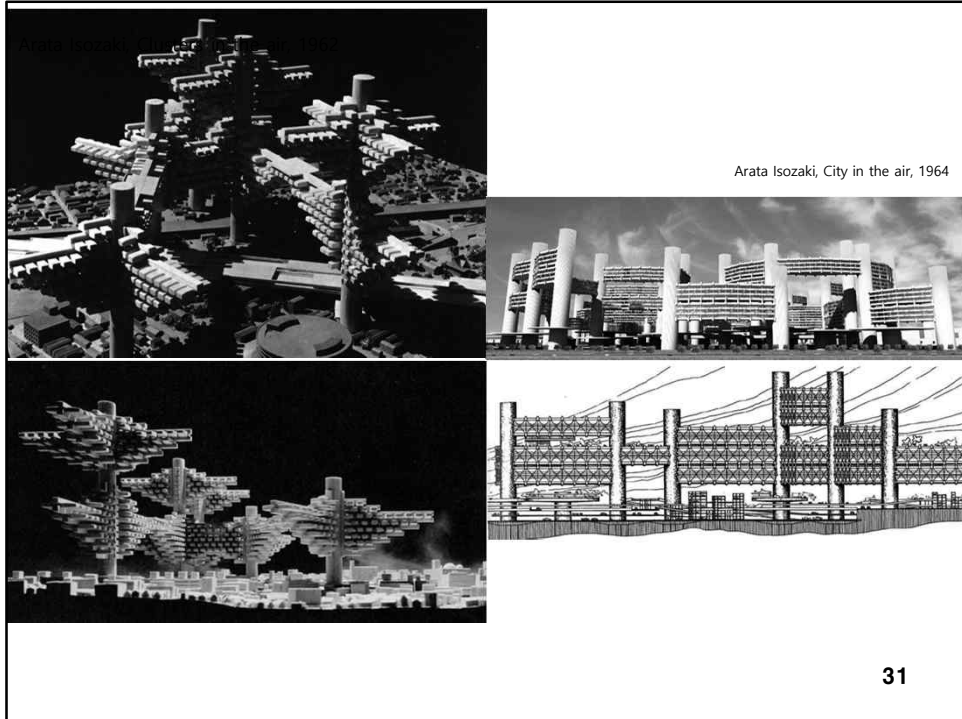


[http://www.metabolismia.org/wiki/Citadel\\_of\\_Erbil](http://www.metabolismia.org/wiki/Citadel_of_Erbil)  
 9rDctMi7mIY/To786uvJpMI/AAAAAANOQ/IVYrff5vSG8/s1600/kurokawa%2BAgricultura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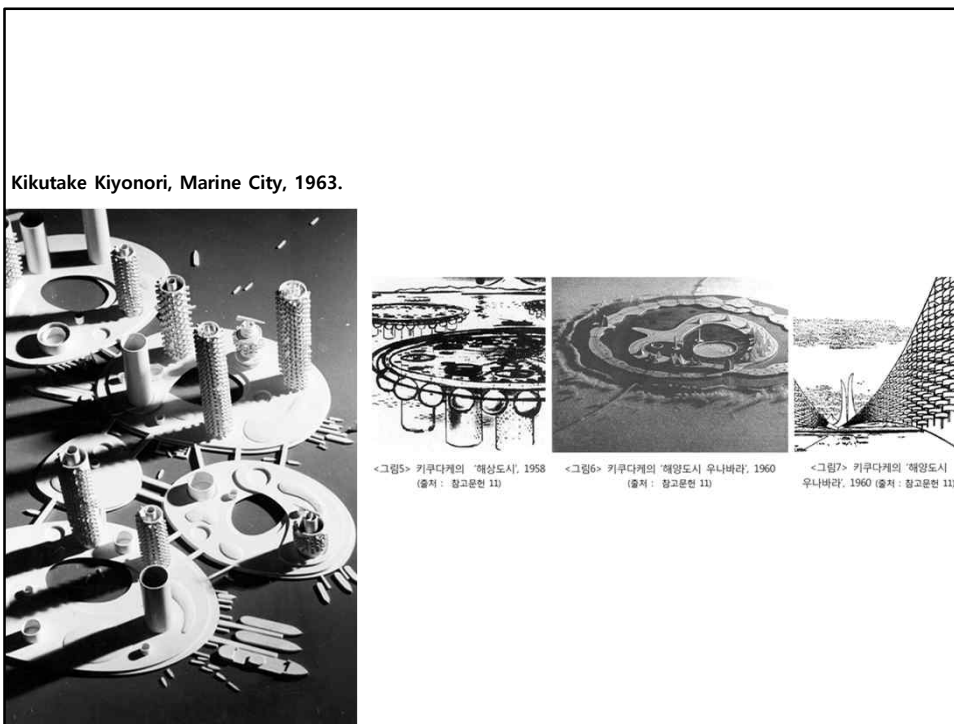
Capsule Tower, 1972, Kurokawa Kis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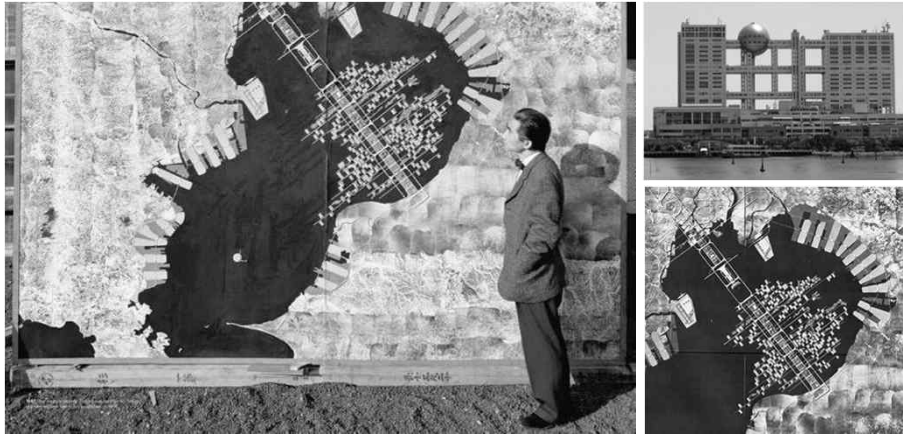
<http://file25.uf.tis.ory.com/image/176A9A3D4F1DF90107E195>







정인하, 1996. 여의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김수근의 1969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35

표 1. 1960년대에 가정된 서울의 확장모델의 비교

	1966년 서울도시 기본계획	196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1969년 여의도 종합개발
토지 이용 계획	<p>1966년 서울도시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도는 도시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동심원과 이를 연결하는 방사선 구조를 보여줍니다. 도시 외곽에는 농촌지대와 자연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p>	<p>196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계권내의 확장'을 목표로 하며, 도시 중심부에서 여러 개의 방사선형 교통과 개발 축이 뻗어 나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p>	<p>1969년 여의도 종합개발 계획은 여의도 지역의 구체적인 도로망, 공공시설, 그리고 개발 구역의 배치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p>
동선 계획	<p>1966년 서울도시 기본계획 동선계획은 도시의 동심원 및 방사선 구조에 맞춰 교통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p>	<p>196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동선계획은 방사선형 개발 축을 따라 교통망을 확충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p>	<p>1969년 여의도 종합개발 동선계획은 여의도 내부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세한 동선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p>

대한건축학회, 2014

‘전통’이 일본 메타볼리즘 그룹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a Tradition in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Metabolism Group

권 제 중\*  
Kwon, Je-Jo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a tradition in the formation of Japanese 'Metabolism' group. Until now in the world architectural circle, the Metabolism group rated simply as a group of contemporary avant-garde architects who have used biological analogy. But, to define the Metabolism group and its architecture simply as a avant-garde architectural group is insufficient to understand it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aim. Therefore, in this study, I focused on Metabolism's architectural purpose rather than its experimental architectural images or theories as a result. By tracing about the formation of group, I analyzed of how the new architectural attempts of Metabolism which have combined Japanese tradition with Modern architecture established in the World architectural trend. Although Korean architectural circumstances are different with Japanese Metabolism's, to succeed the culture and tradition is also our urgent problem and we need to have such a critical mind. Therefore, this study would be expected to help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키워드 :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전통논쟁, 일본건축  
Keywords : Metabolism, Tradition debate, Japanese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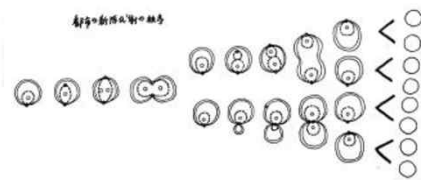


그림5. 세포분열과 유사한 키쿠다케의 해양도시 확장과정, 1960.

그들 내에서 신진대사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것은 키쿠다케였다. 키쿠다케는 건축가로서의 출발을 전통 목조건축의 증개축(増改築)을 통한 복원 작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재건축' 혹은 '갱신'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sup>30)</sup> 카와조에가 키쿠다케에게 준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이미 키쿠다케는 자신의 답상도시, 해상도시를 염두에 두고 '교환'이나 '재생'이라는 주제를 주장했고, 카와조에가 다른 참가자들의



그림7. 교환 개념을 보여주는 키쿠다케의 스케치, 무바 하우스(Mova-House), 1958.

‘전통’이 일본 메타볼리즘 그룹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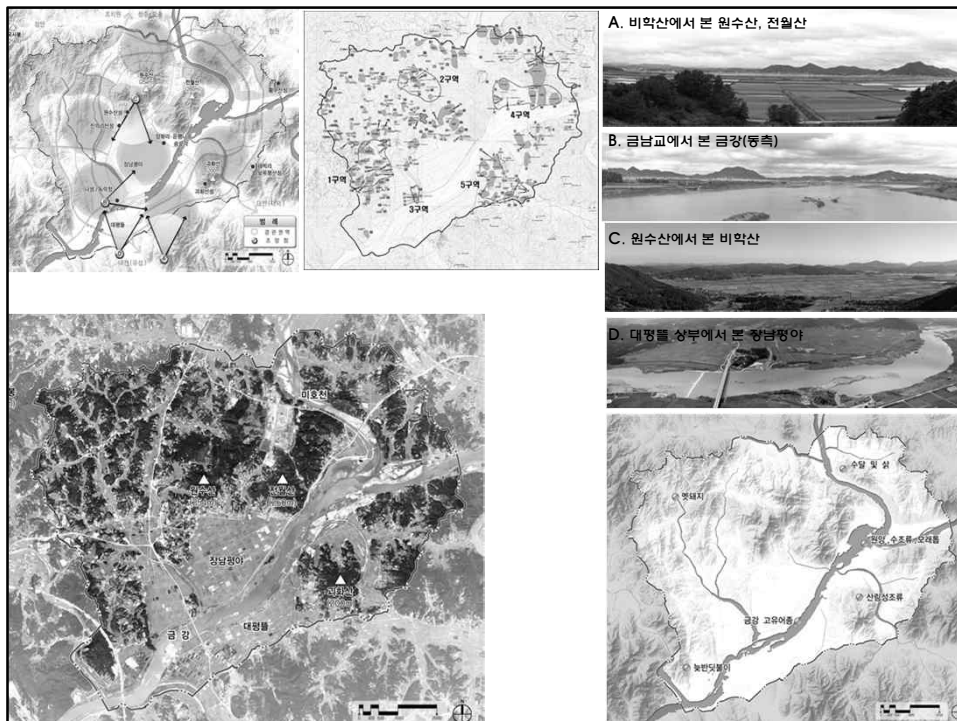
루도카와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세 사람은 한 가지 공통인식 아래 변화와 혁신, 주기적 변형을 의미하는 생물학 용어 '메타볼리즘(Metabolism)'을 그룹의 타자적인 개념과 명칭으로 사용하자고 합의했다.<sup>30)</sup> 그룹의 명칭으로 메타볼리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룹의 이론적 리더였던 카와조에는 '메타볼리즘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타볼리즘'이란, 각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디자인을 통해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안하는 그룹의 명칭이다. 우리는 인간 사회를 원자에서 대성운(大星雲)에 이르기까지 발전하는 하나의 생명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메타볼리즘이라는 생물학 용어를 쓰는 것은 디자인이나 기술이 인간 생명력의 외연(外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31)</sup>

이것은 현대도시를 하나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생명체에서 행해지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건축과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건축 역시 메타볼리즘을 통해 성장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나 건축을 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화(群化)와 성장의 진행과정으로 생각하고, 성장, 변화, 대사, 유통성 등 시간의 흐름에 관계되는 생물학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계문명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성과 도시와 건축에 필요한 새로운 질서를 고안하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의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야기된 여러 상황들이 메타볼리즘 건축가들로 하여금 건축과 도시를 성장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룹의 명칭으로 메타볼리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들이 엇갈린다. 키쿠다케는 메타볼리즘 구성원들이 재생이론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던로서 생물학적 메타볼리즘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하

## #2. How to design a new city? Sejong city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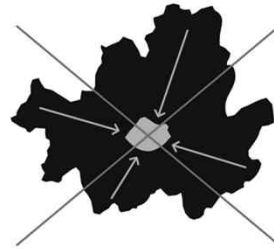


## Design Principle

### Decentr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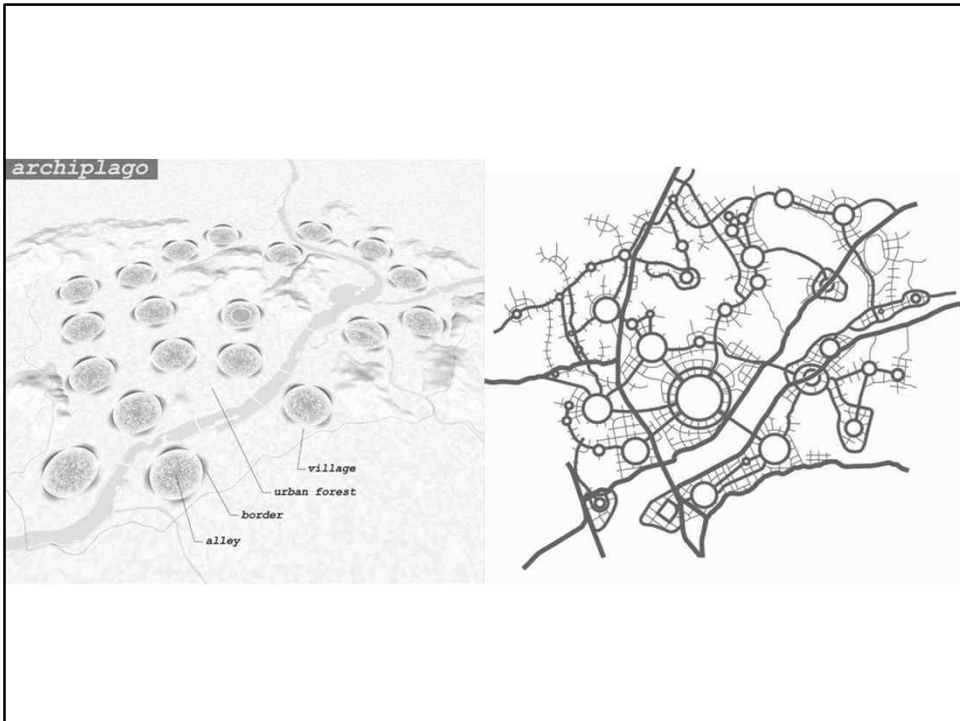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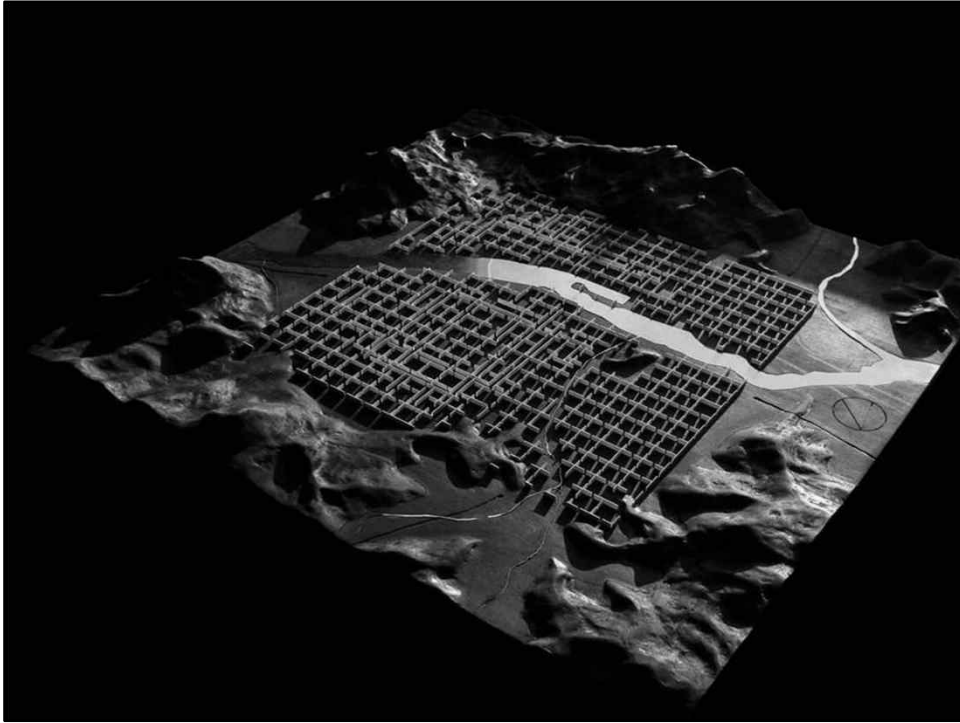
What should be the city structure for the 21st century  
to build the city of peace and democracy ?

The city of the 20th century:



The city of the 21st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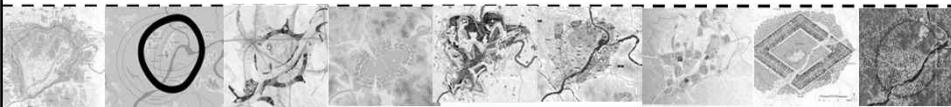
## 4.02 DECENTRALIZED URBAN STRUCTURE

제시된 탈중심적 도시구조

심사위원이 제시한 공모제출작품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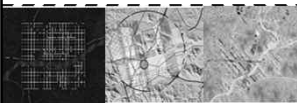
4.10 환상형

*Cir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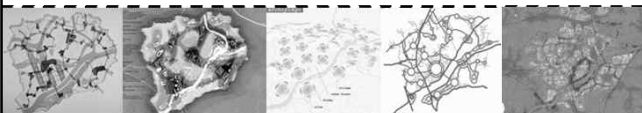
4.20 격자형

*Dots*  
*Gr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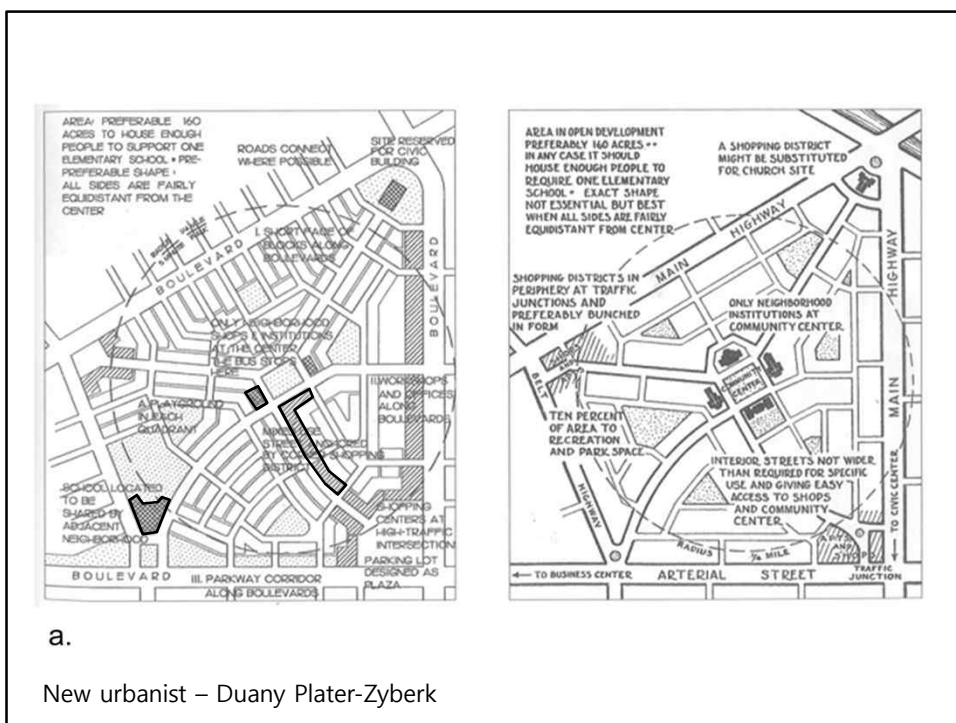
4.30 네트워크형/군도형

*Networks*  
*Archipelag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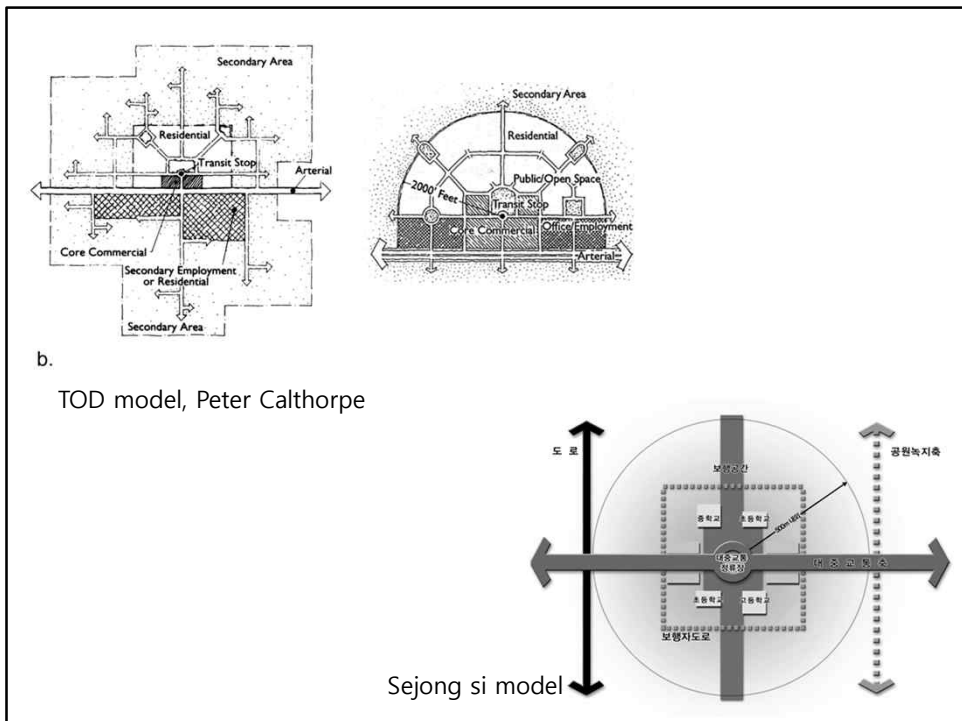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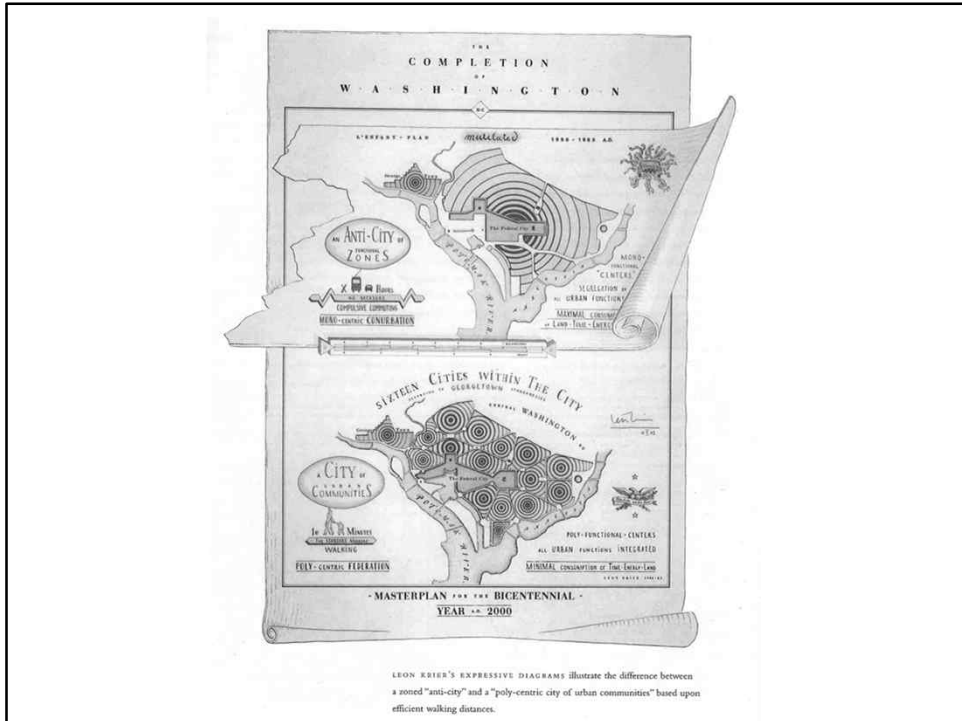


45

# DECENTRAL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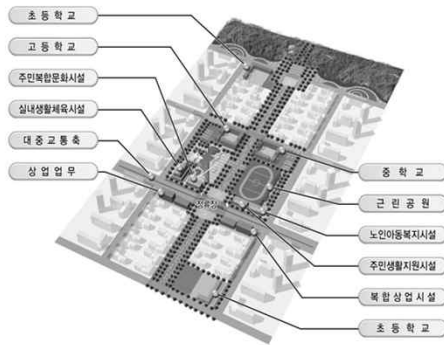




b.  
TOD model, Peter Calthorpe

**Community Corridor for Neighborhood / a complex of cultural/educational/public welfare facilities along the mass transit corridor designed for pedestr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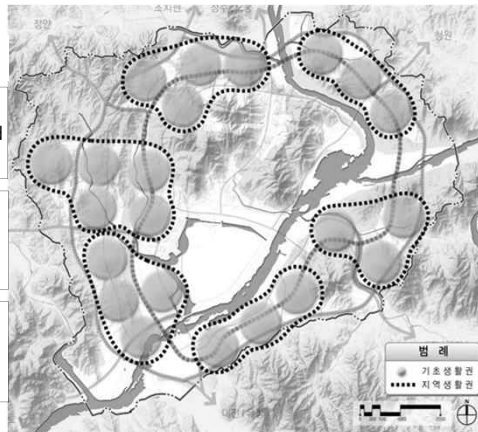
- Promoting public interaction at the community center along the community corridor
- Making a community complex where schools, local cultural facilities and sports facilities are mixed
- Encouraging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and promoting efficient facility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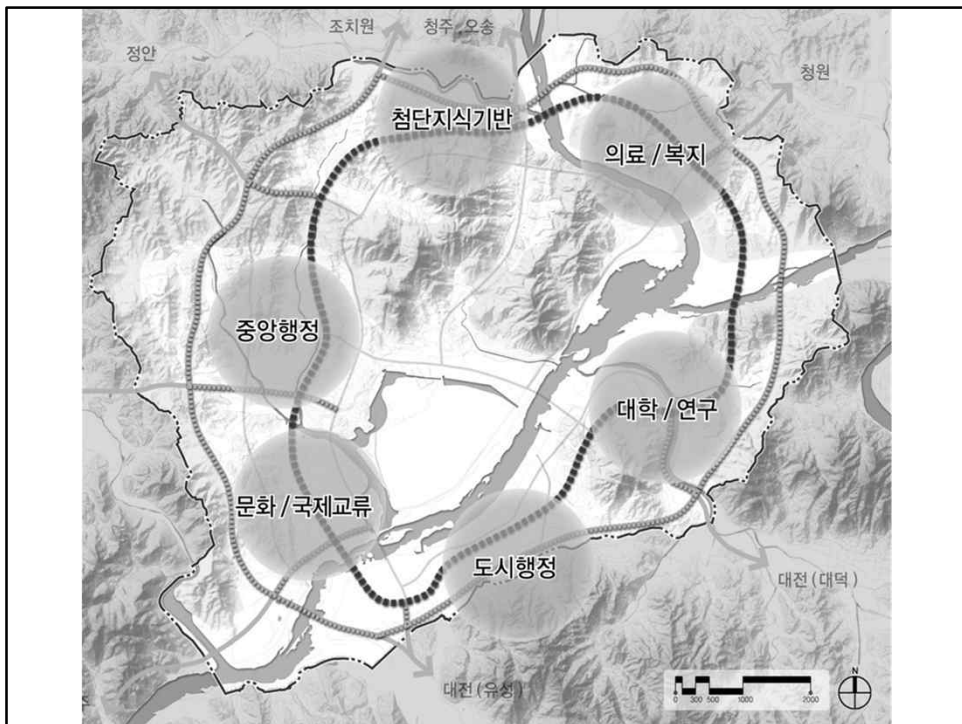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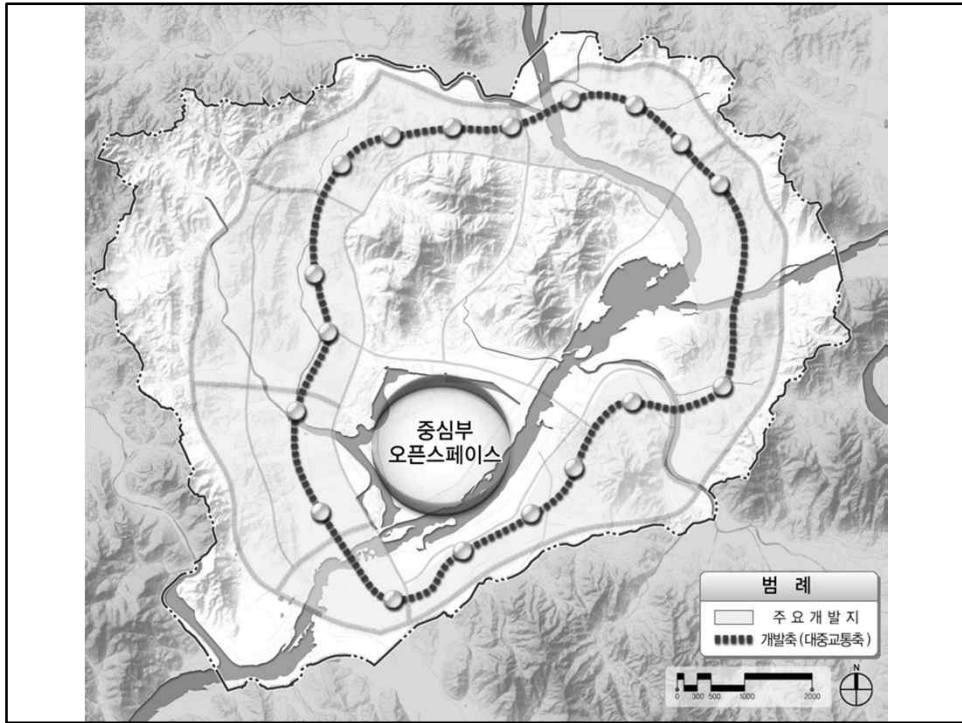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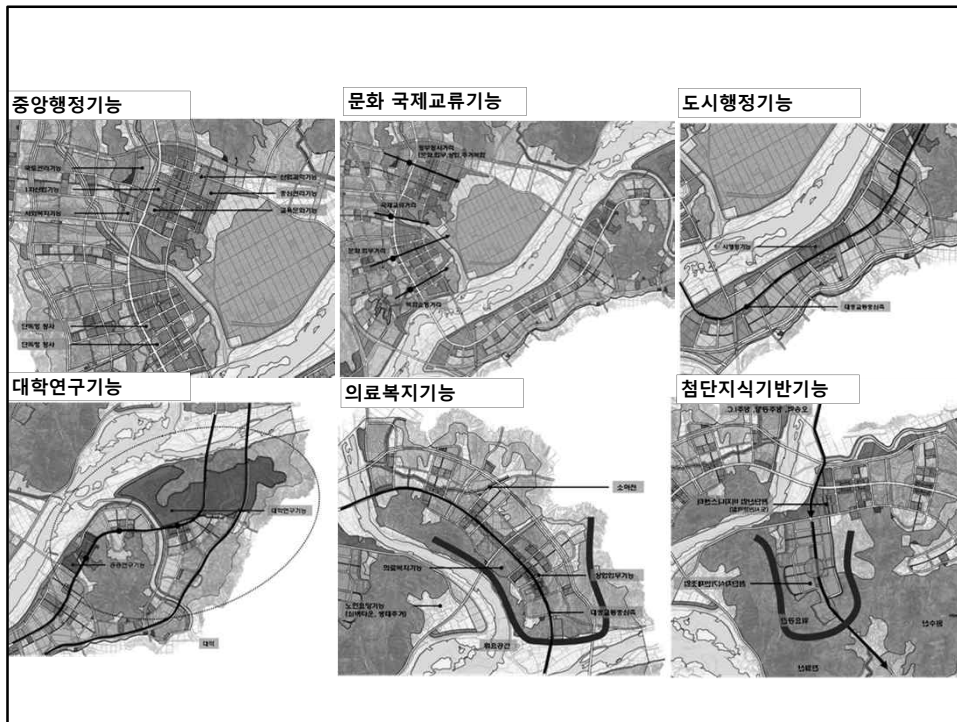
- 22 Neighborhood Community Units
- 20,000~30,000 Residents for each Neighborhood Community Units

Hierarchy	Characteristics
<b>Neighborhood Commun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 thousand inhabitants</li> <li>• About 20 unit of independent and characteristic community</li> </ul>
<b>Local Commun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tworking 3~5 primary communities</li> <li>• Distributing functional nodes</li> </ul>
<b>Urban Commun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presenting Urban Identity</li> <li>• One Unit</li> <li>• Comprehensive collection of local communities</li> </ul>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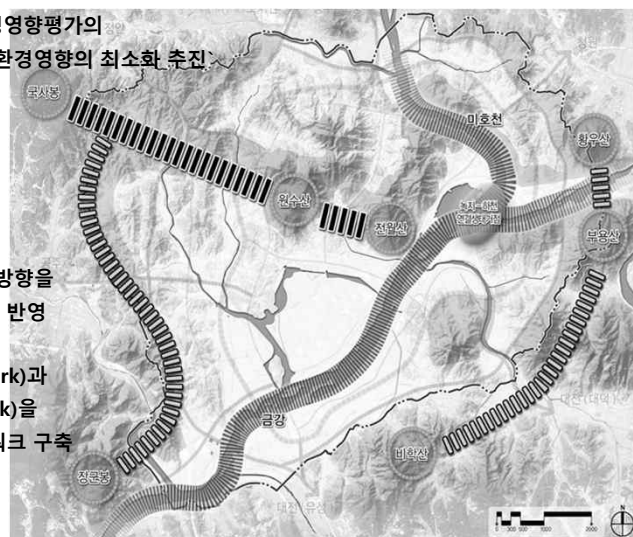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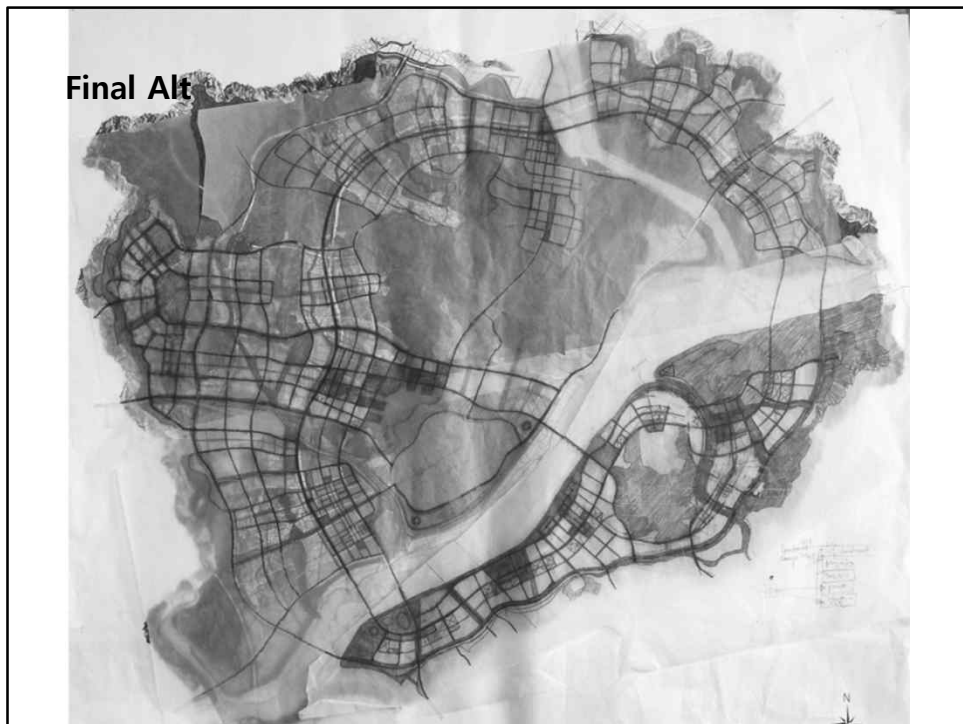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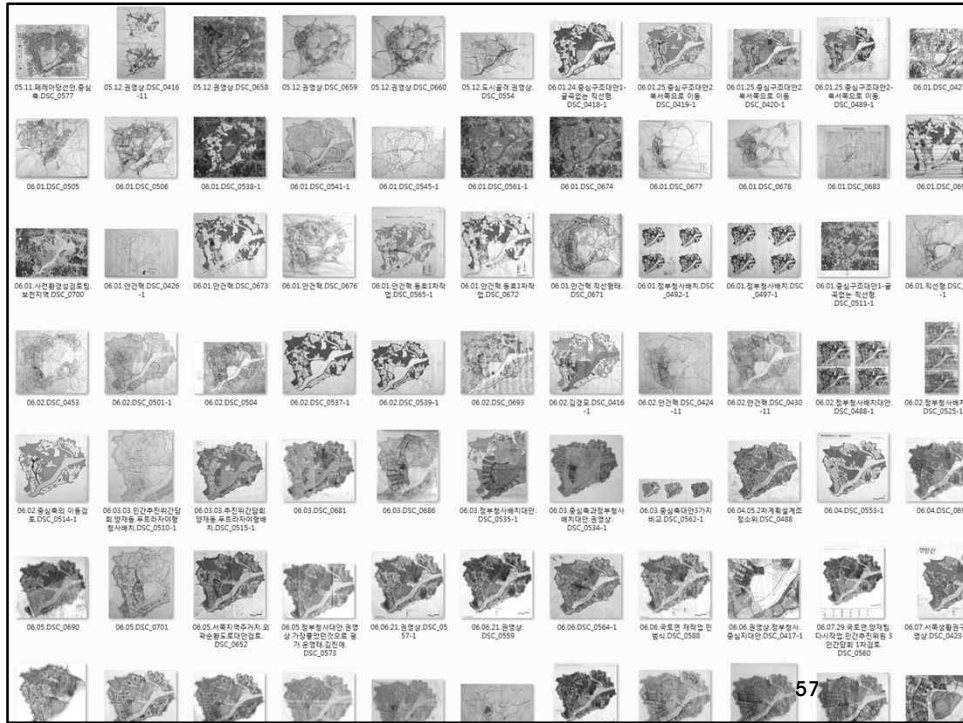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광역녹지축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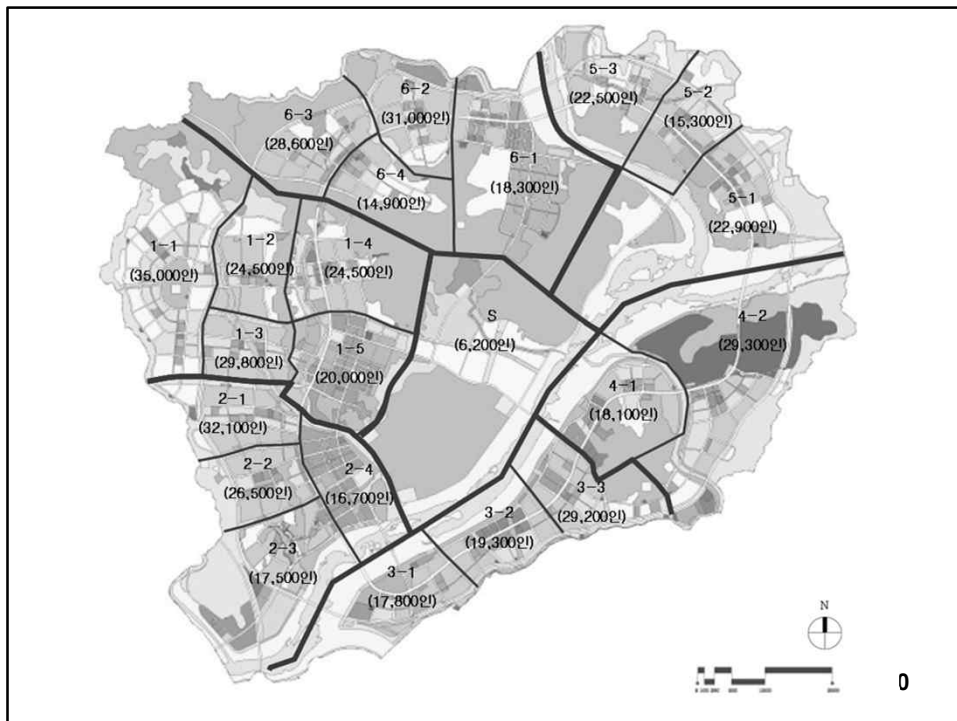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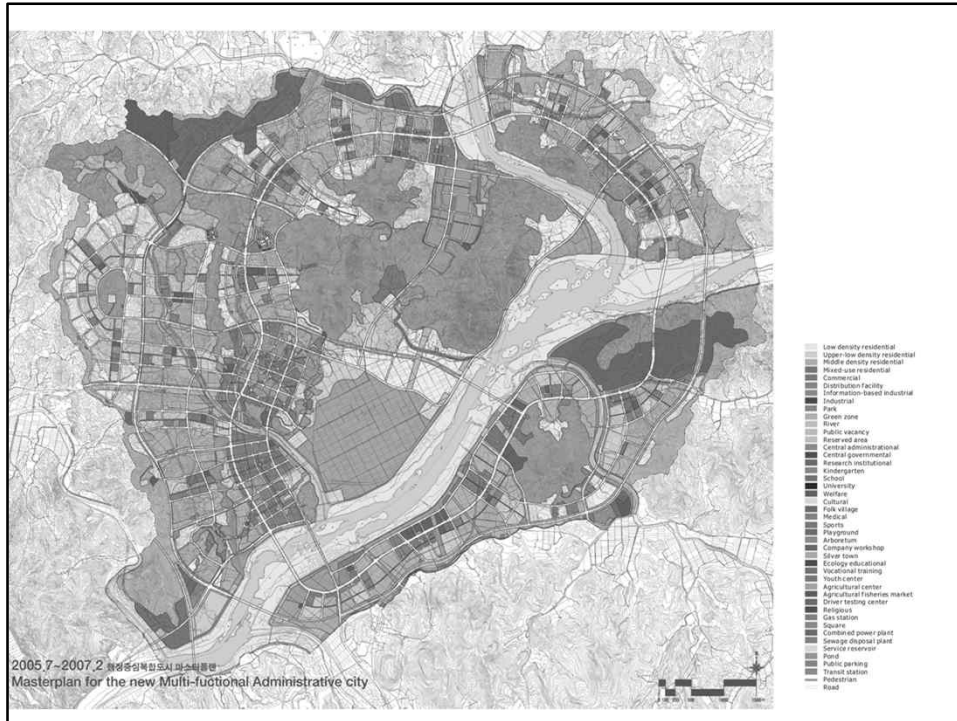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의 실시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최소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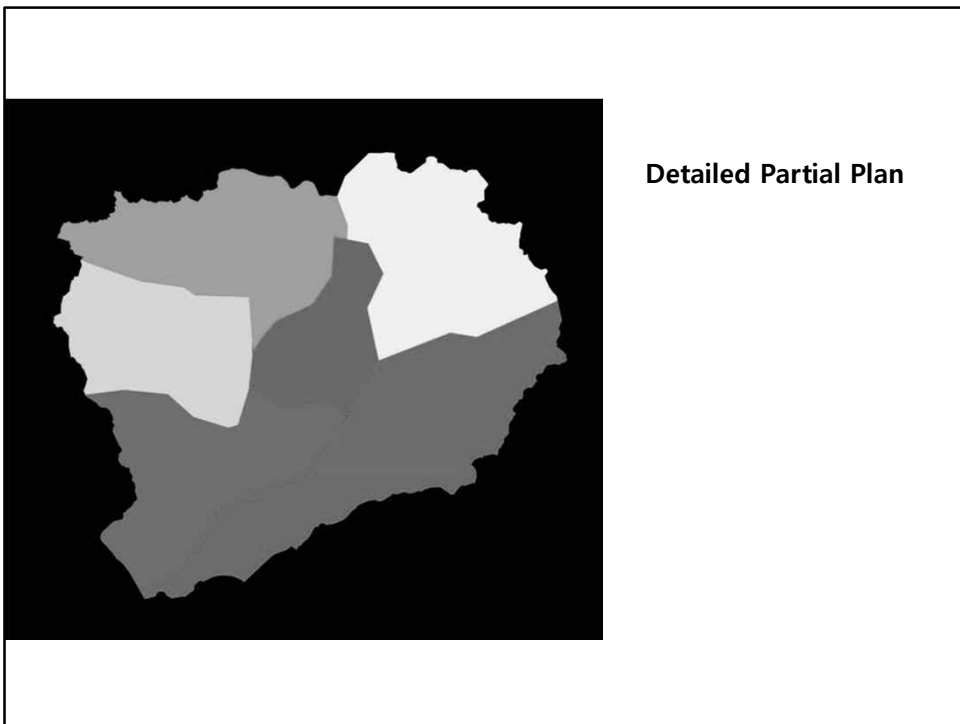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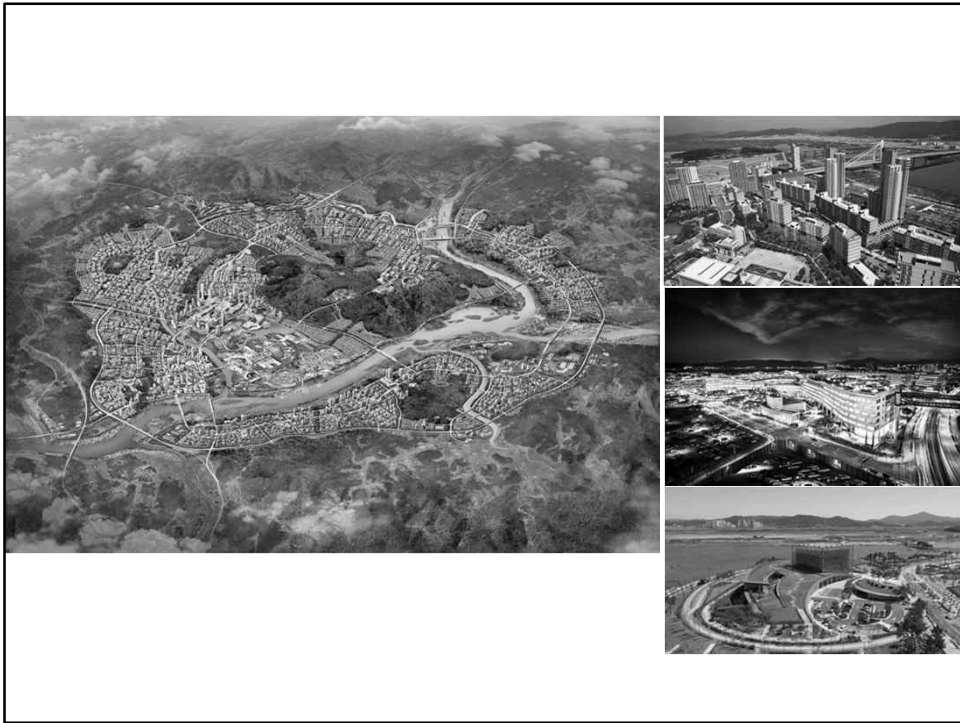
• 환경생태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도시구상에 반영

• 녹지축(Green Network)과 하천축(Blue Network)을 총괄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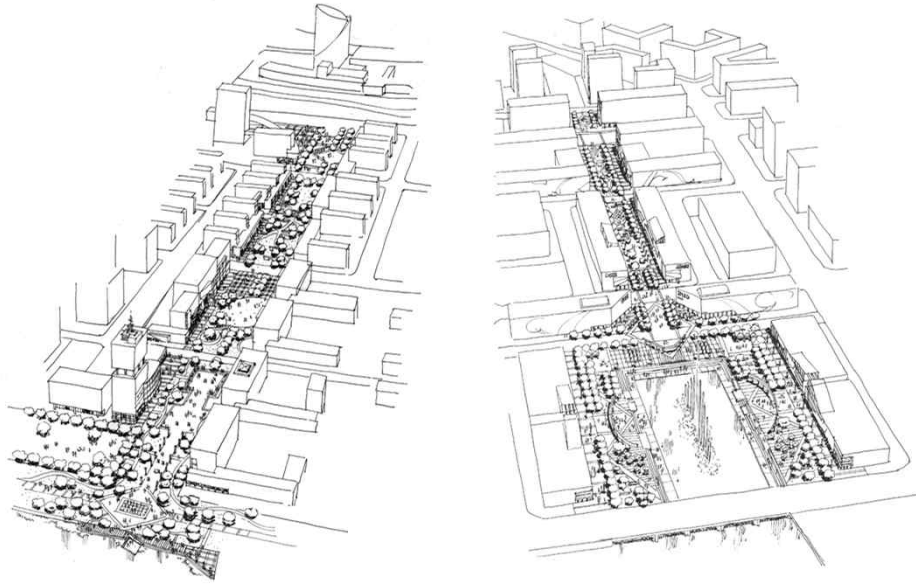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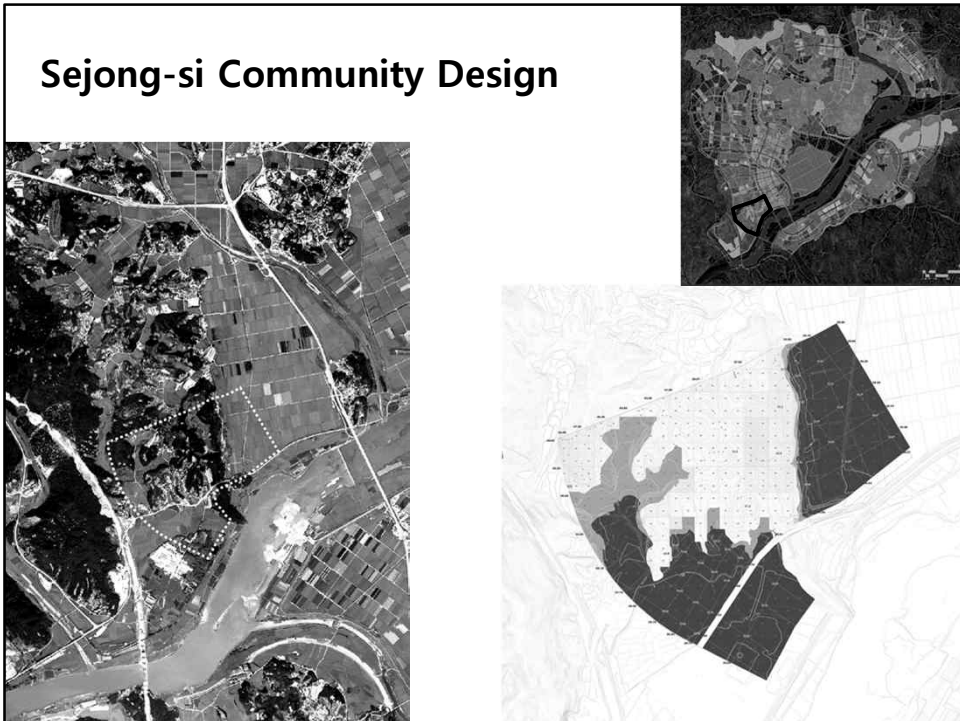


**Detailed Partia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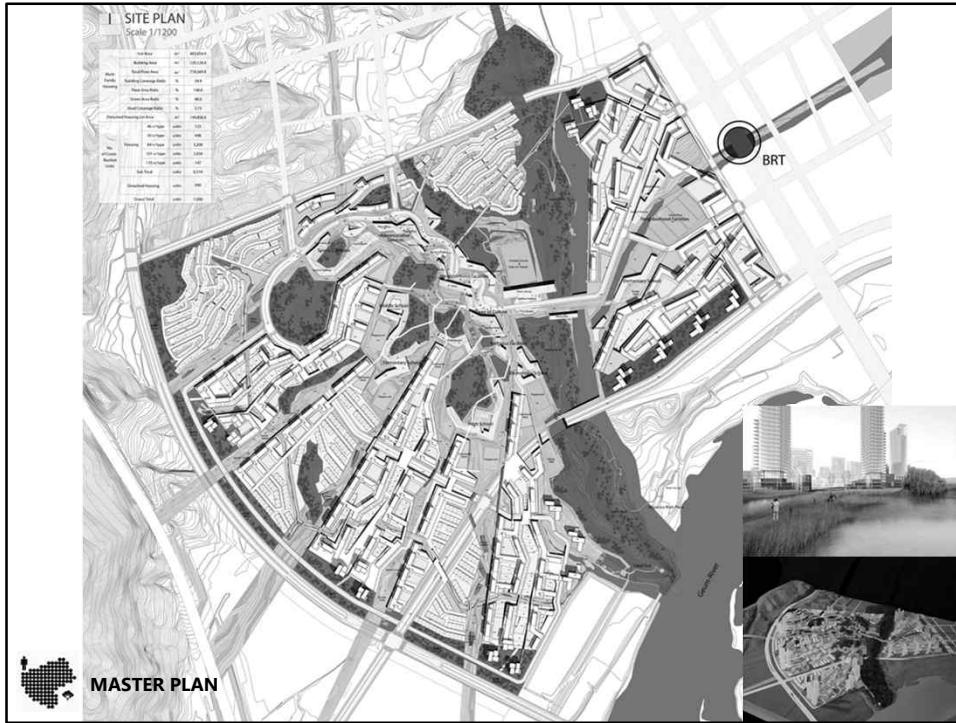
### Pedestrian Design



### Sejong-si Communit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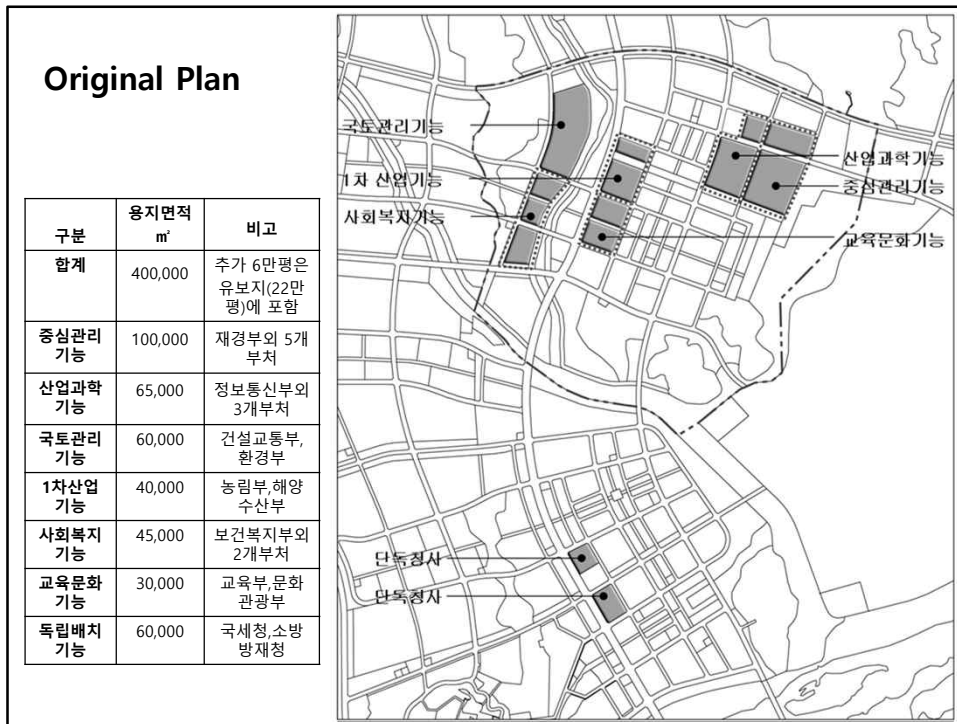


### Central Government

- 시민친화적인 연도형 건축물 유도과 고도이용형 용지면적 설정
- 시민친화적이고 가로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군집분산배치

구분	용지면적 m <sup>2</sup>
합계	400,000
중심관리기능	100,000
산업과학기능	65,000
국토관리기능	60,000
1차산업기능	40,000
사회복지기능	45,000
교육문화기능	30,000
독립배치기능	60,000

• 메인종합건축사무소 2007





7-5. 대중교통수단

고가(정시성 우선)		노면(접근성 우선)	
<b>장·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이나 도시미관상 불리</li> <li>• 광역대중교통과 연계시 별도의 환승 필요</li> <li>• 노면방식에 비해 건설비용이 많이</li> </ul>	<b>장·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약자 등 보행 접근성 유리</li> <li>• 별도 환승 없이 광역교통과 연계 가능</li> <li>• 고가운영에 비해 경제적(건설 및 운영)</li> <li>•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통행 상충</li> </ul>
<b>검토대상 신교통수단</b>	모노레일, 도시형 자기부상, AGT, 첨단 BRT	<b>검토대상 신교통수단</b>	첨단 BRT, 노면전차, AGT

※ 국가사업(과기부/산자부, 건교부 등)으로 중점개발중인 시스템은 크게 3가지

- Bi modal 굴절차량 : 80억원/km, 2600명/시간 (네덜란드 Phileas)
- 도시형 자기부상 : 소음과 진동이 적음, 463억원/km, 5040명/시간
- 경량전철(AGT) : 지상·지하 무인운전 가능, 453억원/km, 4560명/시간

⇒ 효율성과 광역대중교통 연계, 도시미관을 고려 노면방식의 **첨단BRT**가 적절

환상형의 중앙순환도로

- 도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을 중심으로 (보조)간선가로 및 지역연계 가로의 균형적 배치
- 간선가로  
도시 외부순환축  
지역연결축  
도시 내부순환축







해외도시설계 프로젝트  
2017, Myanmar Yangon, New town Planning, KOICA



【 논문 】 대한건축학회지 2010년 4월 2010. 04

## 우리나라 신도시 공간구상에 나타난 선형도시적 영향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 The Influences of Linear City Form on the Spatial Schemes of Korean New Towns and Their Characteristics\*

김주일\*\*  
Kim, Ju-Il

**Abstract**  
Since the 1960s till the present, it seems that Korean newtown development has been influenced by linear city form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o examine the influences, this research first summarized the history of linear cities to classify them into general types, and analyze the spatial scheme of representative Korean new towns with respect to their characteristics as linear cities. As a result, various features of linear cities and their influences were found and the linear form applied to new town planning were found to have changed continuously into a unique style. Linear city form is supposed to be fit to the Korean situation because of its spatial, topographic limits and the needs of high-density towns. Consequently the linear form has been frequently applied to new town planning and their urban form could be evolved from direct imitating to the present unique linear schemes. Now the linear urban form is supposed to be general in Korean new towns schemes, thus it need to be examined and proved to make sure the future improvement.

**키워드** • 선형도시, 신도시, 도시계획, 공간구상, 분당, 일산, 세종시  
**Keywords** • Linear-city, New-town, Urban-design, Spatial-scheme, Bundang, Ilsan, Sejong-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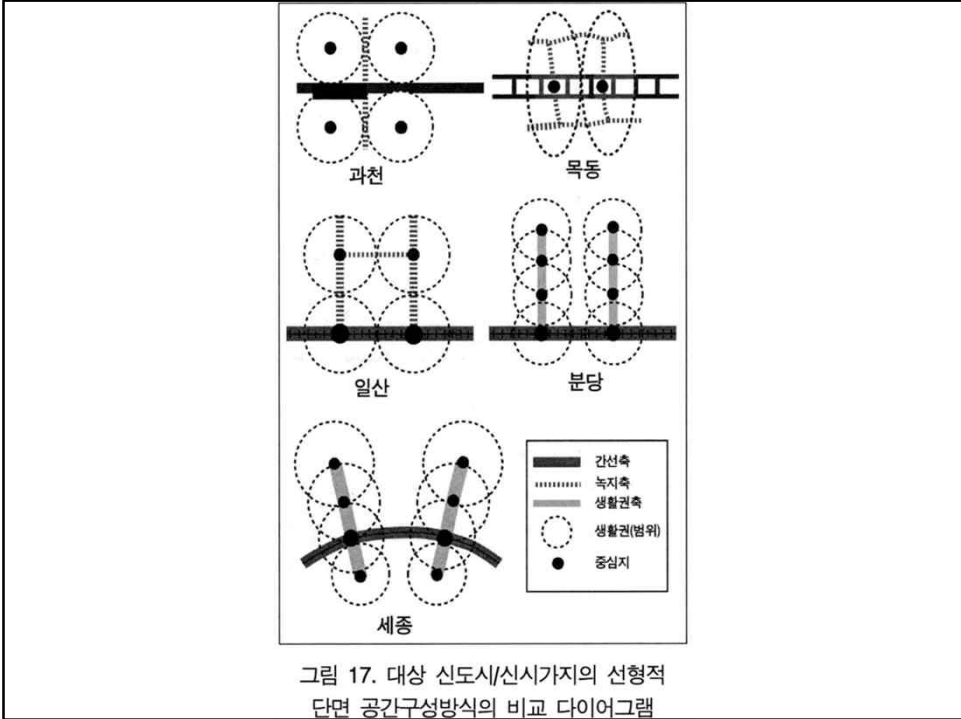
**1. 서론**

**1. 우리나라의 신도시 계획경향, 특징**

우리나라에서 주택문제 해결 및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신도시 건설정책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국토건설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문제들이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시도들과 그로인한 발전은 우리나라 신도시를 어느 정도 독특하고 가치 있는 해결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왔음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금도 여러 가지 목적과 형태의 신도시들이 구상되고 있으며 또한 해외 신도시 계획 분야에 진출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초기에 이어진 신시가지에서부터 최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

\* 본 논문은 한동대학교 산학협력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 본 학회 정회원,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단독저자: juil@handong.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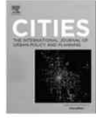
Cities 42 (2015) 242–257

Contents lists available at ScienceDirect



## Cities

journal homepage: [www.elsevier.com/locate/cities](http://www.elsevier.com/locate/cities)



---

City profile

### Sejong Si (City): are TOD and TND models effective in planning Korea's new capital?

Youngsang Kwo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ntegrated 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1, Gwanak st., Gwanak-gu, Seoul 151744, Republic of Korea*

---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14 September 2013  
 Received in revised form 31 August 2014  
 Accepted 1 October 2014  
 Available online 15 November 2014

*Keywords:*  
 Decentralized  
 Urban Structure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New town  
 Sejong Si (City)

**ABSTRACT**

Sejong Si (Sejong City), the second capital city of South Korea, is a new city initiated to achieve the national policy agenda of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by mitigating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The master plan for Sejong City was formulated in 2005 through a project initi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s noteworthy in that it presents a new urban design paradigm of construction reflecting the Korean experience. One major characteristic is Sejong City's ring-shaped design (decentralized and empty in the central area), which makes the city structurally distinct from other modern cities with hierarchical and symbolic structures. Another major characteristic is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0 neighborhood units located in accordance with the ring-shaped structur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a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ND) systems. The urban design method based on TOD and TND models has been effective in terms of Sejong City's decentralized urban structure.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urban design for future development projects.

© 2014 Elsevier Ltd.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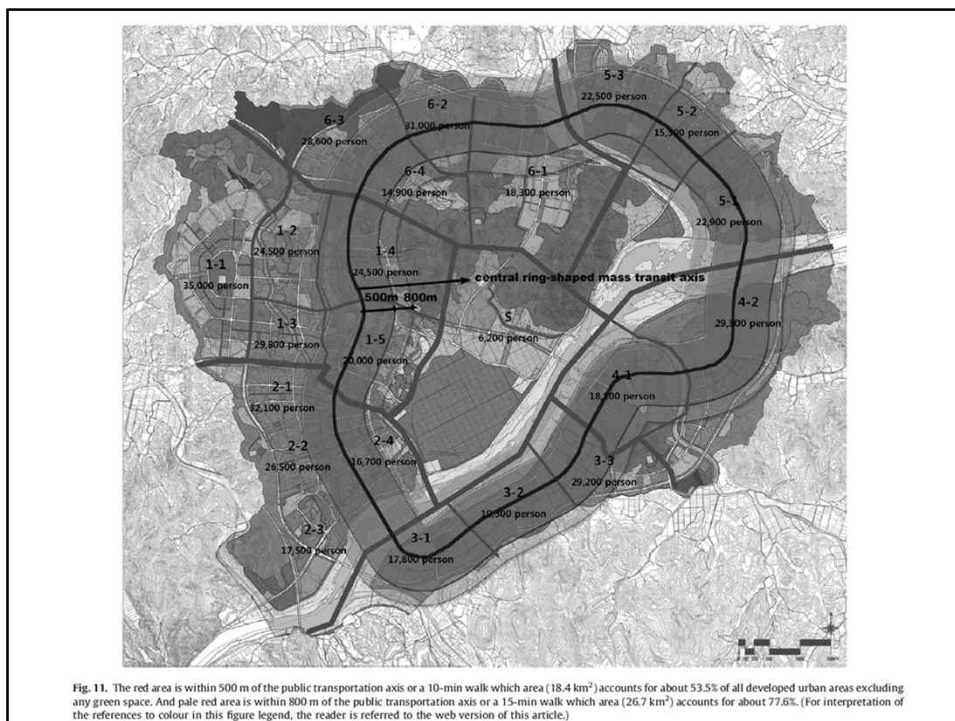


Fig. 11. The red area is within 500 m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axis or a 10-min walk which area (18.4 km<sup>2</sup>) accounts for about 53.5% of all developed urban areas excluding any green space. And pale red area is within 800 m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axis or a 15-min walk which area (26.7 km<sup>2</sup>) accounts for about 77.6%. (For interpretation of the references to colour in this figure legend, the reader is referred to the web version of this article.)